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한인회장 가뭄 후 이제 두 후보 나서 경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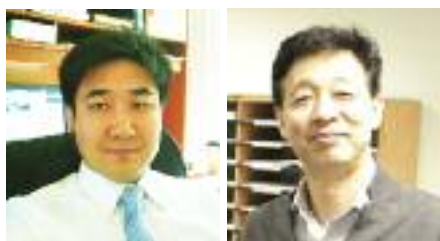
박진영 한인회보 편집장, 장우석 변호사 기존 선거 잣대 적용 못할 유례없는 상황 공정하고 합리적 선정 규칙 합의 중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지난 2년간 후보 기근에 사라졌던 보스톤한인회에 최근 들어 2명의 회장 후보가 나서 경합을 벌이게 됐다.

이번 한인회장 후보로 추천돼 자신의 출마의사를 확실한 한인회장 후보는 박진영 보스톤 라이프스토리 대표(56)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장우석 변호사(48) 2명이다. 한인회보 편집장을 지낸 박진영 대표는 비교적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후보이며 평통부회장 및 재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우석 변호사는 보스톤한인변호사모임을 만들었으며 박 대표에 비해 한인사회에는 비교적 덜 알려진 후보다. 현재 평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 명의 젊고 유능한 후보가 출마해 경합을 벌이는 것은 한인회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칫 과열로 흐를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단 두명의 후보 중 한 명의 한인회장을 골라



장우석 변호사(48,좌)와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 대표(56)

낼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한인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 한인회 선거관리 운영규정을 사용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한인회장 선정의 규칙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한인회장 추천위를 꾸린다면 추천위의 구성 그리고 후보 선출 방법에 대한 사전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한인사회 단체장을 비롯한 한인회 회장 및 이사장으로 구성되는 고문단 정도의 명확한 구성 요건을 합의해 내야 한다. 과정이 공정해야 한인회장의 정통성과 한인사회의 존중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안병학 전 한인회장과 한선우 전 한인회장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이 같은 선출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안병학 전 한인회장, 전 한인회 이사장, 현재 관위원은 “한인회가 없는 상태이니 새로운 한인회 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봐야 한다” 고 말하고 “2월 18일 한인사회 단체장을 비롯해 마지막 이사회 이사회, 재관위원 등이 모여 추천 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선우 전 한인회장은 “아무도 그런 모임을 추진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2월 18일 모임은 형평성도 떨어진다. 가급적이면 광범위하고 공정성 있게 한인사회 주요인사들을 초청해 총영사관에서 ‘보스톤 한인사회를 위한 간담회’로 사람을 모으면 회장에 대해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고 말했다.

문제는 양 후보측이 모두 이런 결정들에 동의하는지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오랜만에 나온 소중한 후보들이 이번 모임을 주도하는 양측에서는 성숙한 자세로 타협해내야 한다. 이마저 조정이 안된다면 양후보가 직접 타협해 내야 한다. 이번 타협은 양후보의 회장 자격을 묻는 첫 번째 시험대일 수도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브래디는 총 6번째 슈퍼볼 우승을 기록했다

패트리어츠 슈퍼볼 최다 우승, 최고 명문 등극

패트리어츠, LA 램스 13-3 격파
밸러치-브래디협작 6승 기록
줄리언 애들먼 슈퍼볼 MVP로 선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로스앤젤레스 램스를 꺾고 통산 6번째 슈퍼볼 우승을 차지하며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통산 우승에서 동률을 기록했다. 2월 3일 애틀랜타 소재 메르세데스-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53회 슈퍼볼에서 패트리어츠 치열한 공격전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역대 슈퍼볼 최저 점수인 13-3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경기는 탄탄한 수비전으로 일관했다. 올 시즌 특히 공격이 활발해 모든 공격부분 기록이 갱신된 것과는 정 반대였다. 일부에서는 지루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9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최고 가격에 원정 한국
4/12 보스톤-인천 직항 취항

보스톤-인천
직항항공권
\$1,199~

NEW 2019
고국관광
패키지
예약가능!

617.424.8956
info@iace-travel.com | www.iace-usa.com/kr | 영문시정: 월-금 9시-12시, 토-일 12시-5시 (ET)

Newstar JB Realty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CENTURY 21
RE/MAX 아일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재관위, 한인회관 매각결정 1달만에 뒤집어

재관위 실사결과 30만불도 못받을 수 있어 철회
프리미어 리얼티그룹 의뢰결과 최소 40만불 의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인회관을 매각기로 해 한 인사회에 지난해 말 충격을 안겼던 보스톤한인회관재산관리위원회(이하 재관위)가 매각 결정을 전격 철회하기로 1월 29일 결정해 당혹케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정 당시 50만불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1월 실사를 해보니 30만불도 못받을 것 같아 매각을 철회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러나 보스톤코리아가 의뢰한 실사금액은 40만불 이상 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관위가 2월 4일 이메일로 제공한 회의록에 따르면 “비슷한 주위 건물들이 (2 Family House임에도 불구하고) 30만불에 나와 28만불에 매각된 것을 감안, 한인회관은 Mixed Use Property (다용도건물, 1 Bedroom에 1 Office)여서 가격을 30만불 이상 받기가 어려운 상태” 라고 밝히고 “신임 한순용 재관위원을 제외한 전 재관위원(들)은 당분간 매각논의는 더 이상 안하며 Market에 내놓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는 것이다.

재관위의 이 같은 매각 철회 결정은 한달 전의 만장일치 의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영호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전화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지금 회관을 팔아서 변호사 에스스로 펀드 즉 CD형태로 보관할 예정”이라며 “아무도 찾지 않는 현재의 한인회관보다는 주차장이 있고 모든 한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빌딩을 새로 짓거나 사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었다. 당시 재관위원들은 이영호위원장에게 매매를 위임했으며 이위

| Street Address | Square Feet | Bed | Baths | Est. Value |
|----------------------------------|-------------|-----|-------|------------|
| 18 Campbell St, Woburn, MA 01801 | 3,901 sqft | 4 | 3 | \$581,000 |
| 13 Campbell St, Woburn, MA 01801 | 1,340 sqft | NA | NA | \$471,000 |
| 14 Campbell St, Woburn, MA 01801 | 2,404 sqft | 4 | 3 | \$566,000 |
| 17 Campbell St, Woburn, MA 01801 | 2,510 sqft | NA | NA | NA |
| 18 Campbell St, Woburn, MA 01801 | 2,380 sqft | 4 | 2 | \$503,000 |
| 19 Campbell St, Woburn, MA 01801 | 3,570 sqft | NA | NA | NA |
| 20 Campbell St, Woburn, MA 01801 | NA | NA | NA | NA |
| 22 Campbell St, Woburn, MA 01801 | 4,163 sqft | 6 | 3 | \$581,000 |
| 28 Campbell St, Woburn, MA 01801 | 2,588 sqft | 5 | 3 | \$474,000 |

리얼티트랙(Realty Trac)의 추정 가격은 \$465,000이었다

원장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정해 건물 매매에 착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영호 위원장은 2월 4일 전화통화에서 “건물을 매각하기 전 일단 시장조사를 한 이후에 가격이 적절하면 매각 결정을 추후에 내리기로 12월달에 결의했다” 라며 당시 매각결정을 내린바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지난해 12월 보스톤코리아와 통화했던 이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재관위원들은 당시 이 같

은 “시장조사후 추후 매각 결정”이란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다.

한달 전에 50만불로 평가하던 것을 한달 후에는 30만이하로 평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이영호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매각 결정시 50만불의 한인회관 가격 산정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참조하지 않았었다” 며 “(성급한 결정에 대해) 한인들에게 ▶▶3면으로 계속



프리미어리얼티 그룹에 의뢰한 결과 크리스틴 손 에이전트는 최대 45만불까지 리스팅 할 수 있으며 가장 낮게 받는 경우 \$40만불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으로 추정했다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면에 이어서
죄송하다” 고 밝혔다.

그러나 매각 철회 결정에도 증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위원들은 지난달 29일 매각 철회 당시에도 구체적 자료검토 없이 이 위원장의 구두발표만을 듣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격 산정과 관련해 이영호 위원장은 2월 6일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정을 도출한 가격은 (이 위원장의 회사 영컨스트럭션) 부동산 팀에서 산정했다” 고 말하고 보스톤코리아의 자료요청에 대해 “부동산팀에 요청해 이를 송부하겠다” 고 밝혔다.

보스톤코리아가 한인회관의 현주소(13 Campbell St., Woburn, MA)를 구글(Google)해서 찾은 레드핀의 추정 금액은 \$487,758이었다. 리얼티트랙(Realty Trac)의 추정 가격은 \$465,000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산정하는 가격은 조금 다를 수 있어 프리미어리얼티 그룹에 의뢰한 결과 크리스틴 손 에이전트는 최대 45만불까지 리스팅 할 수 있으며 가장 낮게 받는 경우 \$40만불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인회관을 관리하는 재판위원들은 이번 매각 및 매각 철회결정에 대해 한인사회에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이기환 관리원) 행정업무 보고와 처리
1-1 이기환 관리원/행정원의 재정보고
1-2 현재 2층 Tenant의 임대계약이 2019년 7월4일에 종료됨으로, 5일전에 연장계약이 필요함
1-3 2층 Tenant - 허타기 주위에 약5시간 직통되지 않았고, 주차우리가 예약된 강건수 Constructor에게 연락하며, pipe insulation이 필요하며, 보수공사를 위해서 "방생시 비용 인력"하여 조치하기로 함.

2. (이영호 위원장) 건물매각을 위한 Market Survey
2-1 지난 2018년 12월18일 긴급재판위 모임에서, 지난2년간 한인회관의 용이성이 여러가지 시장 (위치와 피싱 등등) 으로, 현재까지 땅어지기에 건물매각 가능성을 논의한바 있었다.
2-2 이에, 건물매각을 추진전에 영한 Market Survey를 전 디모에, 가격이 적절하리 대각결정을 주위에 내지기로 결의한바 있다.
2-3 현재 Survey결과, 비슷한 주위건물이 12 Family House임에도 불구하고 30만불에 나의 28만불에 대각결정을 각안, 한인회관은 Mixed Use Property (1 Bedroom & 1 Office)까지 가격을 30만불 이상 받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2-4 따라서, 현안을 위원을 제외한 모든 재판위원은 당분간 매각논의는 미어상 언하며 Market이 내놓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2-5 그리고, 앞으로의 한인회관이다 1명인미 혹은 봉사단체가 출현수입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유익한 BUSINESS PLAN을 제시한다면 재판위의 후가논의를 거쳐 "한인회관"을 처분을 포함하며 전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2-6 또한, 재판위의 임무는 오로지 "법정관리"에 모든 책무가 있으며, 대각 혹은 소유권의 변경등 중요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한인 전체 커뮤니티 의견을 반드시 거친후에 가능함을 다시한번 천명하였다.

3. (이종섭 영사)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5만불)과 재판위 정관 수정 요청
3-1 전 공판의 지침에 따르면, 한인회관구입자금의 일부금액이지만 5만불의 지원금이 쓰여졌기에, 앞으로 만약 건물매각이 미뤄진다면 - 5만불에 대하여 반드시 상의하여 처리되어야 함을 보고함.
3-2 또한, 위보고와 함께, 재판위 정관에 <주보스톤총영사관이 지정하는 공관원 3명이 재산관리위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참여하며, 이 비상임 위원은 한인회관의 일반적업 사들에 관여하지 않고, 회관 소유권 및 처분에 관한 사정에 관여하는 권한을 가진다>를 삽입함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동의/재정하여 요청안을 받아들여기로, 단결합치로 결의함

4. 위원장... 회의종결을 선언하다.

지난 1월 29일에 열린 뉴잉글랜드 한인회관 재산관리 위원회 회의록. 이날 회의에는 이영호 (위원장), 남궁연 (전-위원장), 안병학, 김성군, 박진영, 한순용, 이기환 (건물관리와 행정), 이종섭 (영사, 주보스톤 총영사관등)이 참석했다

1월 모임에 참여한 재판위원은 이이다. 이종섭 영사는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했다.
영호 위원장, 남궁연, 안병학, 김성군, 박진영, 한순용, 이기환 위원 7명
editor@bostonkorea.com



한미노인회가 충청향우회와 가든하우스의 후원으로 개최한 구정맞이 대잔치에 70여명에게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노인회 구정맞이 대잔치 성료

충청향우회와 가든하우스 후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한미노인회가 충청향우회와 가든하우스의 후원으로 개최한 구정맞이 대잔치에 70여명에게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미노인회 윤철희 회장은 특히 구정 설날 행사를 위해 후원해 준 충청향우회 가든하우스 측에 윤철희 회장님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가든하우스 대표는 “오늘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 더욱 건강 유지하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란다” 는 인사 말을 전

했다
점심식사후 내 팀으로 나눠 50여 노인들이 놀이에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오늘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어서 감사하다. 내년에도 기대하게 된다” 고 고마움을 전달했다.
한미노인회의 자원봉사자들과 임원진들은 “다시한번 후원해 주신 분들과 또 오늘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하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답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Spring Schedule 2019

All Classes Starting March 16th(Saturdays)

| Class | Time |
|-------------------------------|------------------------------|
| SAT II MATH IIC | 9:00AM - 11:00AM 3/16 - 5/25 |
| SAT II Chemistry/AP Chemistry | 11:30AM - 1:30PM 3/16 - 5/25 |
| SAT II Biology/AP Biology | 2:00PM - 4:00PM 3/16 - 5/25 |
| SAT II MATH IC | 5:00PM - 7:00PM 3/16 - 5/25 |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신년 하례식 가져

미 주류사회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보스턴 = 보스턴라이프스토리) 박진영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는 민족의 명절 설을 목전에 둔 벌링턴에 위치한 세븐 스프링스 커뮤니티센터에서 2019년 상반기 전체회의 및 신년 하례식을 2월3일 가졌다.

윤미자 회장은 “작년 2018년 보스턴협의회는 ‘한반도 평화’ 라는 큰 명제 아래 자문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아래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19년도에도 자문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18기 민주평통활동을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고 인사했다.

유현경 차세대분과위원장은 지난 1월 황인성 평통 사무처장 일행의 방문과 그에 따른 전문가 간담회 및 강연회 등 일련의 행사 내용과 사업집행 보고 등을 이어갔다.

여기서 유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차세대는 물론 미국 학생들에게 한반도의 평화 정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설명하는 의미있는 자리 되었다” 고 전하며 향후 보스턴협의회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차세대 및 미국 지식인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것을 희망했다.

모든 자문위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평통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행사를 훌륭하게 치뤘던 유현경 차세대분과 위원장과 황우성 간사에게 큰 박수를 보내 주었다.

이후 협의회 운영방안과 사업계획 등 일련의 회의를 끝으로 전체회의를 마무리한 보스턴 협의회는 김용현 총영사 내외와 이종섭 동포담당 영사를 초청하여 2019년 설날 신년하례식을 진행하였다.

김용현 총영사는 “보스턴 평통 자문위원님들 작년 한해 수고 많으셨고 금년에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며 인사를 대신했고 뉴잉글랜드 동포 여러분들 모두 만사형통 만복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동포들에게도 설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총영사 새해 인사후에는 딱딱한 회의 분위기를 벗고 즐겁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간 덕담과 음식을 나누며 설날 새해를 함께 맞이하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는 민족의 명절 설을 목전에 둔 벌링턴에 위치한 세븐 스프링스 커뮤니티센터에서 2019년 상반기 전체회의 및 신년 하례식을 2월3일 가졌다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인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2019
건강도
부탁해

NEW YEAR SPECIALS

2월 20일 까지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Mild 100g 증정

Event 2

3+1
에브리타임 1박스(30포) 구입시
10포 무료증정

Event 3

천능정 구입시
2번째 제품은 50% OFF
(*추가 선물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867.30 → \$650.48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칠드런스 뮤지엄 설날잔치 한국전통놀이

제기차기 가장 인기, 공기놀이 가장 어려워 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칠드런스뮤지엄이 설날행사를 2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설날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 양일간에 걸쳐 수백명이 방문하여 한국의 여러 전통놀이들을 배우고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스톤 칠드런스뮤지엄은 이번 주말인 2월 10일 설날행사를 개최하는 보스톤미술관(MFA)과 함께 매년 설날 행사를 개최하는 박물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미문화재단(KACF)과 The CnT lab이 공동 스폰서를 받은 한국팀은 올해 한국전통놀이를 선보였다. 10세에서 70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의 한인 20여명이 참가해 제기차기, 딱지치기, 젓가락사용하기, 그리고 공기놀이 4가지 전통놀이를 시범 후 함께 즐기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 중 가장 인기있었던 종목은 제기차기였다.

제기차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인기 만점이었다. 본인이 직접 만든 제기를 차보며 체험하는 순서였는데, 미국의 핵키색(hacky sack)과 비슷하지만 한국제기만의 특색이 돋보여 더 인기를 끌었다.

방문자들이 꼽은 가장 어려운 게임

은 공기놀이였다. 김진아씨의 3명의 공기놀이 시범은 양일간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했다. 이들은 방문자들이 뽑은 가장 기억에 남는 마스터 중 마스터였다. 방문자들은 전통놀이를 체험한 후 본인이 만든 제기과 딱지, 어린이용 젓가락과 태극기를 선물로 받아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들 중 상당수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감사함을 한국말로 표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방문중인 한 가족은 본인들의 휴타운에도 방문해달라며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다. 내년에도 꼭 만나고 싶다는 감사의 말들로 현장은 매우 화기애애했으며 박물관 스텝들 또한 최고의 행사라고 손꼽았다.

매년 행사를 담당하고있는 이혜승(Heather Lee, the CnT lab 대표)박사는 "가장 한국스러운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되게 한다는 사실이 매년 놀랍다. 매년 많은 분들이 자원 봉사로 행사에 참여하고 계신다. 그분들의 한국사랑이 없다면 이 행사는 진행할 엄두조차 낼 수 없다. 이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 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혜승 박사는 매년 설날에 진행



보스톤 칠드런스뮤지엄이 설날행사를 2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설날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하고 있는 이 행사에 자원봉사하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칠드런스 뮤지엄 설날잔치에는 박찬



휘(Jessica park)이 이끄는 전통무용팀이 매년 함께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겨울 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가 뉴햄프셔 소재 캐넌 마운틴(Cannon Mountain) 2월 16일 토요일 겨울정기산행을 떠난다.

캐넌 마운틴은 4100 ft이다. 산행 거리는 왕복 5.8마일이고 산행 시간은 4.5시간이다. 난이도는 5단계 척도법 중 3.5로 보통이다. 바위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경사가 높은 곳도 있다.

산행 준비물은 겨울산행으로 방한복, 방풍의, 방한장갑, 고글, 배낭, 등산화착용, 아이젠(Clampson), 겨울 모자, 스틱, 각반(Gaiters, Spats), 식수와 간편 중식 등이다. 티셔츠 및 청바지 등 면으로 된 옷은 착용을 금지한다. 회비는 20불이며 뉴햄프셔 2번출구 파크앤라이드에서 오전 7시 10분까지 집결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2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해야 산행이 가능하다. 신청 및 문의는 978-569-3256 (김상호)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북미대화 부정적 여론, 우리가 바꾼다

한인들, 평화협정 미국인 설득위해 나섰다.
매사추세츠 연방 상하원에 지지요청 서명 운동
미국인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홍보
미국의 각 주요도시의 한인단체와도 연대 전국적 활동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들이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미국 정치인들은 물론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나섰다. 이들은 정치인 청원 운동을 비롯 부정적 미국사회에 평화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주 한인사회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사추세츠 한국평화행동'이란 이름으로 약 2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한 이 단체는 이달 27, 28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담은 서한과 지지서명을 MA 주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현재 "MA주 상하원의원들께 보내는 평화조약 체결 지지요청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많은 한인들이 이 서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2월 4일 보스톤 소재 임옥 씨 자택에서 만난 매사추세츠한국평화행동의 회원인 이금주씨는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를 일궈내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북한 핵과 연계시켜서 진행하려 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핵문제와 분리해서 평화협정부터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리씨는 "일반적으로 비핵화와 북한경제제제를 푸는 것을 선행한 이후에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며서 "일단 방법론은 추후에 결정하고 순수하게 평화를 지향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전후 세대로 구성된 회원들은 과거 한국전쟁을 통해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갖고 김정인에게 "삼촌과 형을 죽인 인물"과의 협상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보수층의 지적에도 충분한 공감을 표시했다. 과거의 아픔을 간직한 분들이 이 같은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과거의 북한과 남한이 현재의 북한과 남한과 다르므로 과거와 다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며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최소한 유일한 분단과 적대 체제를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회원인 안신형 박사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싶어서 이 서명운동을 한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 가야 한다.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평화 반대주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승희 씨는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 대화했을 때 그 살인마들과 어떻게 대화하느냐고 했지만 냉전을 종식시켰고 몇천만을 죽인 중국과도 피의 강물을 건너서 만났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8천만명의 삶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인 그리고 전세계의 평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의 문제"라는데



매사추세츠한국평화행동의 회원중 2월 4일 임옥, 브라이언리씨 부부 자택(사진 가운데)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전승희씨, 황우성, 안신형, 이금주씨. 평화협정체결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진보적인 매사추세츠 평화행동(MPA)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의 시민운동가들에게까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다.

미국인 친구들도 '평화'란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인 친구들에게 큰 기대없이 메시지로 보냈는데 '이에 대해 새롭게 알게됐다'며 서명에 가까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회원들은 상당수가 같은 경험을 했다며 미국인 친구들에게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알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체의 회원들은 단순히 서명지만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월 초순 워싱턴을 직접 방문, 매사추세츠 상하원 의원들을 직접 방문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매사추세츠 출신 상원은 현재 엘리자베스 워렌, 에드워드 마키 상원 2명과 하원 조선인 어어나 프레슬리, 로리 트레한을 비롯 시스 몰튼,

조 케네디3세, 케서린 클락, 리차드 닐, 스티븐 린치, 짐 맥거번, 그리고 하원 외교위 소속인 빌 키팅 의원 등 총 9명의 하원의원이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한국평화행동의 청원운동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의 일환이다. 워싱턴DC, 시카고, LA, 시애틀 등지에서 한인들이 이 같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각 지역에서 따로 출발했지만 비슷한 운동을 벌이는 단체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서명에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명 링크
한글서명, <https://tinyurl.com/Peace-TreatyNow>
영문서명, <https://tinyurl.com/MAKPC>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도로위 운전시비 끝에 37세의 애शल랜드 거주 남성이 자신의 인피니티 SUV 후드에 65세의 프레밍햄 남성을 매단채 최고 70마일로 매스파이크 서쪽 방향으로 약 2마일 가량을 질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운전시비, 사람 후드에 매단 채 70마일 질주

로드 레지 사건 중 최악의 사례 발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도로위 운전시비 끝에 37세의 애शल랜드 거주 남성이 자신의 인피니티 SUV 후드에 65세의 프레밍햄 남성을 매단채 최고 70마일로 매스파이크 서쪽 방향으로 약 2마일 가량을 질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25일 금요일 오후 90번 매스파이크 서쪽 방향의 웨스턴 지점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였다. 애शल랜드 거주 마크 피츠제럴드(37)는 자신의 인피니티 SUV를 픽업 트럭이 끼어들면서 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프레밍햄 거주 리차드 캠프로우스키(65)는 인피니티가 라인을 바꿔 앞질러 가면서 픽업트럭의 미러를 치고 앞으로 접히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캠프로우스키는 차량을 세우지 않고

그냥 운전해가는 피츠제럴드와 정보를 교환하려고 그를 따라잡았다.

금요일 오후 도로 정체로 인해 차량이 멈춰서자 캠프로우스키는 인피니티 조수석쪽으로 가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갖길에 세울 것을 요구했으나 피츠제럴드는 차를 세우지 않았다. 캠프로우스키는 조수석에 있는 물병을 집어들고 인피니티 앞으로 가서 차량을 가로막았고 피츠제럴드가 차량을 움직이자 후드에 뛰어올라 물병으로 유리창을 가격했다.

피츠제럴드는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상대 운전자를 후드에 매단채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몇번이고 차를 멈추고 캠프로우스키에게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캠프로우스키가 거부하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캠프로우스키는 피츠제럴드가 “속도를 높였다.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 자신을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SUV 속도가 빨라져 60-70마일로 달리자 “죽게 됐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주위 운전자들은 사람을 매달고 운전하는 차량이 도로 정체로 멈춰서자 가운데 놓고 사방으로 포위했으며 운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접근해 피츠제럴드를 차량에서 내리게 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총으로 위협한 사람까지 모두를 체포했다.

월덤 지법은 피츠제럴드에게 \$500의 보석금을 받고 방면했고, 캠프로우스키는 가족들의 서명으로 방면했다. 총을 들었던 프랭키 헤르난데스 씨는 그냥 방면됐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주내 플루로 2명째 사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플루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매사추세츠 주내에서 두번째로 발생했다. 주 보건당국은 2월 1일 프레밍햄 거주 4세의 여아가 플루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루 앞선 1월 31일 주 보건당국은 밀포드 스테이시 미들스쿨에 재학 중이던 12세의 아론 제너스 학생이 플루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주 보건부(DPH)는 두명의 아동은 지난 주 모두 사망했지만 각각 다른 발병원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단 한 명의 아동만 플루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었다.

주보건부의 감염질병국의 래리 매도프 박사는 “1월, 2월은 전형적으로 플루감염이 높은 시즌이며, 플루 관련 합병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질병으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도프 박사는 “플루에 최선의 보호장치인 플루 백신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하는 안타까운 사망”이라고 지적했다.

매도프 박사는 “주민들은 바로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하며 항상 손을 씻고 기침할 때 입을 가리며 플루를 앓게 되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능하면 집에 머물라”고 당부했다.

주 보건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현재 플루가 더 만연하다는 내용을 1월 30일 발표했다. 1월 25일

까지 주요 플루 실험실이 확인한 플루 환자는 5,693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12건에 비해 훨씬 높은 숫자다.

주보건부는 실험실 결과 또는 병원 입원 기록으로 플루환자 수를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플루 증상을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확진 받지 않은 환자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플루 확진판정이 두배가량 늘었음에도 응급실 및 병원 입원환자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현재 응급실 방문율은 3.3%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8%나 줄은 수치다. 이에 대해 매도프 박사는 “플루 백신의 효과가 훨씬 높아진 것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에 유행인 H1N1 플루는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이들의 플루증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질병통제센터는 지 지역에서 플루로 사망하는 환자가 매년 약 1만2천에서 5만6천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 당국은 매년 약 250에서 1,100명이 플루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아우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보스톤 차이나타운 먹거리 가이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차이나타운은 그 지역 최고의 중국 음식 맛을 보장한다. 역사 깊은 보스톤의 차이나타운에는 딤섬이나 북경오리와 같은 전형적인 중국 음식을 비롯하여 광둥식, 사천식 요리, 푸젠요리,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전역의 맛을 볼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번 주말 음식 새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차이나타운에서 맛집 투어를 해보면 어떨까. 보스톤매거진이 선정한 보스톤 차이나타운의 레스토랑 10곳을 소개한다.

CHINA KING
차이나 킹에서 북경 요리를 먹으려면 적어도 24시간 전에 주문해야 한다. 말토오스로 문지르고 밤새도록 숙성시켜 구운 북경 오리 는 세 가지 코스 요리로 제공된다. 바삭바삭한 오리 껍질과 밀전병을 춘장에 찍어 먹는 요리와 오리 고기를 야채나 국수와 함께 곁들이는 볶음요리, 오리 수프는 언제 먹어도 맛이 좋다.

60 Beach St., 617-542-1763,
chinakingma.com.

EMPIRE GARDEN RESTAURANT
최근 새롭게 단장하여 금장식으로 번쩍이는 옹화이어 가든 레스토랑에 들어서면 상하이나 홍콩으로 순간 이동한듯한 기분이 들것이다. 딤

섬 카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메뉴로는 달콤한 글레이즈가 발린 돼지고기 만두, 라이스페이퍼로 감싼 새우만두 등이 있다.

690 Washington St., 617-482-8898,
mpiregardenboston.com.

HONG KONG EATERY
차이나타운 최고의 완탕수프를 맛보려면 홍콩 이터리에 가보자. 돼지고기와 생선, 대파가 들어있는 뜨거운 국물 요리이다. 가게 창문에 전시된 구운 닭과 돼지고기를 곁들여 먹어도 좋을 것이다.

79 Harrison Ave., 617-423-0838,
hongkongeatery.com.

KAZE SHABU SHABU
카제 샤부샤부는 13개의 육수, 2개의 국수 및 생선, 새우, 소고기를 비롯한 수십 개의 재료들로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어 먹는 재미를 선사한다. 씨프앤터프 콤보에 메추리 알과 송아지 혀를 사이드로 주문할 것을 추천한다.

One Harrison Ave., 617-338-8283,
kazeshabu.com.

NEW DONG KHANH
베트남 쌀국수, 스프링 롤, 베트남식 피자 등, 최고의 베트남 음식을 제공한다. 기존의 베트남 쌀국수와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맛을 시도해



EMPIRE GARDEN RESTAURANT

보고 싶다면 타마린드 향이 나는 새콤달콤한 맛의 칸 추아(cahn chua)를 추천한다.

83 Harrison Ave., 617-426-9410,
newdongkhanh.com.

NEW SHANGHAI RESTAURANT
레스토랑 이름과 달리 북경 스타일 간식과 사천지방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튀긴 커민 양고기와 마파두부 등 다양한 사천지방 음식을 제대로 된 매운맛과 함께 즐길 수 있다.

21 Hudson St., 617-338-6688,
newshanghaihoboston.com.

PENANG
말레이시아 요리는 중국, 태국, 인도 요리의 뽀뽀로 맵고 짜고 달콤한 맛과 다양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카레에 밀빵을 곁들여 먹는 로티 차나이, 고기를 코코넛 밀크와 향신료에 장시간 조리낸 른당 등의 요리를 정글 스타일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멀리 휴가를 떠났던 느낌이 들 것이다.

685 Washington St., 617-451-6373,
penangmalaysian.com.

PEACH FARM
홍콩 스타일의 광둥식 해산물 요리점이다.

레스토랑 앞의 수조에서 직접 고른 식자재로 신선하게 조리된다. 생강과 간장으로 맛을 낸 블랙피시 썸, 마늘이 곁들여진 관자 요리 등이 대표적이다.

4 Tyler St., 617-482-3332,
peachfarmboston.com.

SHOJO
레스토랑 뒷벽의 화려한 벽화를 매년 바뀌어 칠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1988년부터 시작한 레스토랑 차이나필에 이어 아래층에 푸젠 레스토랑 문을 열었다. 태국 칠리가 가득한 보드카, 다섯 가지 향료 맛 버터가 곁들여진 치킨과 와플 등의 요리를 제공한다.

9A Tyler St., 617-423-7888,
shojoboston.com.

SPICY WORLD
베이징 길거리 인기 음식인 마라탕을 맨 처음 매사추세츠에 소개한 레스토랑 중의 하나이다. 국물의 매운맛을 결정하는 다음 고기와 야채, 전분의 종류를 고르면 된다. 7 Beach St., 617-654-2980, spicyworldboston.com.

sun@bostonkorea.com



KAZE SHABU SHABU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shalom DENTISTRY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패트리어츠 슈퍼볼 최다 우승, 최고 명문 등극

▶▶ 1면에 이어서

. 전반을 3-0으로 마치고 3쿼터까지 3-3으로 탄탄한 공방전을 이어가던 경기는 4쿼터 7분여를 남겨두고 패트리어츠의 시원한 공격 드라이브로 승패가 결정됐다.

풋볼 선수로서는 은퇴할 나이가 지난 올해 41세인 탐 브래디는 롭 그론코우스키에게 패스를 시작으로 4번의 연속 패스를 성공하며 램스의 앤드존 2야드 지점까지 도달했다. 이 드라이브에서 그론코우스키는 두번의 패스를 받아내며 무려 47 패스리시빙 야드를 기록했다. 이어 패트리어츠 러닝백 소니 미셀은 20야드 러싱 터치다운을 완결하며 패트리어츠는 10-3으로 앞서갔다.

재러드 고프가 이끄는 램스는 바로 반격에 나서 패트리어츠 진영까지 전진했지만 4쿼터 4분 17초를 남겨두고 패트리어츠의 올프로 코너백 스티븐 길모어에게 뉴잉글랜드 2야드 지점에서 볼을 빼앗기면서 사실상 경기를 내주는 결과를 도출했다. 재러드 고프는 슈퍼볼이란 큰경

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지 3쿼터까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번 경기는 한편으로는 지루했지만 뉴잉글랜드 팬들 입장에서는 올시즌 최고 공격팀을 최고의 디펜스로 압도하는 흥미로운 경기였다. 로스앤젤레스 램스는 전 경기동안 단 한번도 레드존(상대진영 20야드 지점)까지 진출하지 못하는 약한 공격력을 보였다. 전 4쿼터를 통해 단 3점만을 내준 것은 역사상 슈퍼볼 경기에서 1972년 델러스 카우보이스가 마이애미 돌핀스에게 3점만을 내준 이래 처음이다.

141야드 패스를 받아내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리시버 줄리언 에들먼과 26야드를 패스한 쿼터백 탐 브래디는 패트리어츠를 스틸러스와 최다우승 공동1위로 견인했다. 브래디는 총 6번째 슈퍼볼 우승을 기록하며 4회 우승의 조 몬태나(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테리 브래드쇼(피츠버그)를 제치고 2승차이



1. 관중들의 환호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빌 벨리치 감독
2.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는 디펜시브라인백커 리더 카일 벤 노이(53)와 돈타 하이타워(54)
3. 패트리어츠 치어리더들
4. 손을 들어 답하는 탐 브래디(검은모자 선글래스)
5. 디펜시브라인 애덤 버틀러가 관중이 던진 맥주를 단숨에 들이키고 있다



로 벌이며 역대 최고 쿼터백 (GOAT: Greatest Of All Time)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브래디는 통산 9번째 및 3년 연속 슈퍼볼에 6승3패를 일궈냈다.

반면 젊은 쿼터백 재러드 고프(24)가 229야드 패스를 기록한 램스는 결승전에서 터치다운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팀이 되는 수모를 당했다. 램스는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첫 7차례 공격을 모두 펀트로 마무리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통산 슈퍼볼 전적도 4번 진출에 1승 3패로 저조하다.

빌 벨리치 뉴잉글랜드 감독(66)은 최고령 우승 코치가 됐다. 2002년 당시 세인트루이스 램스를 꺾은 이래 18년동안 무려 9번째 슈퍼볼 결승에 팀을 진출시켜 패트리어츠 왕조(Patriots Dynasty)를 이끌었다. 슈

퍼볼 전적 6승3패가 됐으며 최다우승 및 최고령 우승 지도자가 됐다.

패트리어츠는 지난 2002년 첫 우승 이래 2004, 2005년 연속 우승 그리고 2015년, 2017년 그리고 2019년까지 통산 6회 우승을 기록하며 2000년 이래 최다우승 및 최다 슈퍼볼 진출 등 최고 풋볼팀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정술, 힌다리교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eamkorea)
이메일 : huream@huream.kr
홈페이지 : www.hure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패츠 우승 퍼레이드 150만 명 몰려 축하

보스턴 퍼레이드 역사상 최대 인파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12명에 불과

(보스턴=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6번째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약 150만 명의 팬들이 다운타운 보스턴에 모였다. 53회 슈퍼볼에서 우승한 패트리어츠는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지난 5일 우승 퍼레이드 행사를 진행했다.

보스턴 경찰서의 존 보일 경사는 이번 패트리어츠 우승 퍼레이드에 보스턴 퍼레이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밝혔다. 또한 15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모였음에도 대부분 질서 정연하게 퍼레이드를 즐겼다고 덧붙였다.

보스턴 경찰서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책임있게 행동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퍼레이드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 것에 대한 인사를 전했다.

보스턴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퍼레이드 행사 중 단지 12명만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사람 중 7명은 미성년자였다.

체포된 사람 중 5명은 싸움에 연루되어 연행되었으며, 3명은 공공장소

에서 음주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나머지는 경찰의 통제를 따르지 않아 체포되었다. 이외에도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34명이 응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기록적인 인파가 몰린 덕분에 대중교통 이용자 역시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 혼잡을 피해 대중 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컴퓨터레일을 운영하는 케올리스 컴퓨터 서비스에 따르면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레일을 이용

했다. 이날 12만 7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컴퓨터레일을 이용했다.

아직 정확한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MBTA는 패트리어츠 퍼레이드 당일 전철과 버스를 이용한 사람은 2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전 기록은 작년에 레드삭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여 할로윈에 퍼레이드를 진행했을 때 세워진 22만 5천명이었다.

보스톤헤럴드는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레디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경기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패트리어츠의 다음 우승이 언제가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번 퍼레이드에

몰려들었다고 보도했다. jsi@bostonkorea.com



패트리어츠의 6번째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약 150만 명의 팬들이 몰렸다



패트리어츠 우승기원하는 신생아들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우스터에 위치한 유메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응원하게 되었다. 슈퍼볼 경기가 열렸던 지난 주말에 태어난 아기들은 패트리어츠 담요와 모자를 선물로 받았다.

유메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18명의 아기들이 패트리어츠 담요를 두르고 방울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아기들에게 제공

된 패트리어츠 담요와 모자는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과 은퇴한 신생아 담당 간호사들이 모두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다.

유메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는 “지금까지 봐왔던 패트리어츠의 승리를 기원하는 치어리더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 같다”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소개했다. 신생아들의 응원 덕분에 패트리어츠는 랩스를 상대로 13-3으로 승리했다. 슈퍼볼 역사상 가장 적은 점수를 기록한 경기였다.

jsi@bostonkorea.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축 개업 25주년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주지사, 사이버 왕따 법안 재발의

사이버 왕따에 대한 학교 교육 의무화 성과 관련된 내용들 강화 또는 개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캐린 폴리토 부주지사가 공동으로 사이버 왕따 관련 법안을 재발의했다. 최근 사이버 왕따 사례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연방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약 100만 명의 매사추세츠 학생 중 1만 4천 명 정도의 학생이 2017년에 사이버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2017-18학년도 기간 동안 매사추세

츠 주의 학교들은 단지 2,031건의 사이버 왕따 사건만을 보고하였다. 또한 사이버 왕따를 당한 학생의 약 12%는 자살까지 고려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폴리토 부주지사는 “이미 각 학교에는 사이버 왕따와 관련한 정책이 있다. 그러나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재발의된 사이버 왕따 법안은 각 학교에서 사이버 왕따가 얼마나 위험한지, 청소년들이 성적인 사진 등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

동인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는 기존의 사이버 왕따 정책을 기반으로 성적인 사진을 이용한 사이버 왕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다시 수립해야 한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도, 섹스팅을 한 청소년들이 중형을 선고 받는 것을 막아주는 내용도 재발의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이버 왕따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7년 4월이었지만, 결국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회기에도 이 법안은 각계 각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우리는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CNN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합의...1년 · 10억불 규모

"계약 1년 더 연장 가능성도"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과 한국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결정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CNN이 4일 보도했다.

CNN은 이날 두명의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 이번 SMA 합의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거의 10억달러(약 1조1190억원)로 인상됐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국무부 한 관리리는 CNN에 "양측은 가능한 한 빨리 남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상당한 재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번 합의에 대해 다년인 아닌 1년짜리 계약이고, 이후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차 한국 정부에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CNN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 내용을 승인하고 서명하기로 했는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했는지 여부를 묻는 CNN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wonjun44@news1.kr



사이버 왕따를 당한 학생의 약 12%는 자살까지 고려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트럼프, 국정연설서 2차 북미회담 공식화... 27~28일 베트남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밤 9시 연방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실시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공식화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베트남의 어떤 도시에서 회담을 열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연설을 무대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예고한 건 북핵 문제를 자신이 담판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의 과감한 새 외교 정책의 하나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인질들이 귀환했고, 핵실험이 중단됐으며 15개월 넘게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내 생각엔 지금 당장 북한과 중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적대 국가'는 이란이 유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을 두고 '악행을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얻지 못하도록 지난해 이란 핵합의(JCPOA)에서 탈퇴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과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언급했던 이른바 '악의 축' 국가로까지 거론됐던 북한과는 해빙 무드임을 구체화했

다. 이날 90여분 동안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주제는 '위대함을 선택하기'였다. 그러면서 무역이든 북핵이나 중동문제든 어떤 분야에서든 미국이 우선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올해가 미국의 달 착륙 50주년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주 분야에서 계속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내비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설 초반 트럼프 대통령은 각 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화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보복과 저항의 정치를 끝내고 무한한 화해와 협력으로 공동선을 추구하자"면서 "오늘날 우리는 위대함을 선택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연설 직전 TV 앵커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2년간 이룬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자찬했다. △일자리 창출 △에너지 생산력 증대 △멕시코·캐나다와의 USMCA 협정 등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청중들은 이 발언에 호응하며 '미국'(USA) 구호를 외쳤다.

경기 활성화로 여성들이 큰 이익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창출된 일자리의 58%가 여성의 몫으로 됐으며,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 권리 신장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뮐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당파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국경장벽 건설 자금이 포함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현재 남부 국경에서 전례없는 안보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곳을 지키는 국경수비대 요원들을 '영웅'으로 부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 위기 해결을 위해 법 집행요원을 충원하고 마약밀매와 아동 인신매매를 허용하는 법적 맹점을 없애겠다"면서 "국경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텍사스 엘파소는 장벽 건설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거듭났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적 발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sta@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북 강경파 미 공화당 의원 김정은 칭찬 멈춰야...채찍 필요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애덤 킨징어(공화·일리노이)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칭찬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군 예비역 킨징어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도 북한에 가장 강경한 인사로 꼽힌다.

킨징어 의원은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밤 신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고 언급한 데 대해, "김정은에 대한 칭찬을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주한미군을 유지할 때 적과 협상할 수 있다. 채찍(stick option)이 있어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안이 정말 형편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해내야 하지만, 2차 회담 이후에도 진전이 없다면 더는 진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을 시작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며 회담 성공을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회담 이후 미국 인질 3명을 석방하고 추가 미사일 시험을 단행하지 않았을 뿐, 핵무기 감축이나 미사일 실험장 해체에 있어 어떤 검증 가능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 수장들도 지난 29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에 의존해 왔으나, 작년 말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감축 계획을 밝힌 이후 외교 정책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angela204@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MASS-Drain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내주 초 중 베이징서 이어져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주 초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이어진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WSJ는 미 행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미국이 이번 협상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달말 열릴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 의견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오는 27~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베트남 다낭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

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겹친다.

하지만 WSJ가 인용한 미 행정부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에 나설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과 한두 차례 더 만나려 한다"고 밝힌 것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의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SJ는 미 행정부가 미중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는 것은 양국 간의 대화가 멈췄다는 뜻은 아니지만, 협상 타결까지 많은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또 WSJ는 중국이 당초 국가안보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내주 초 베이징에서 열린다

를 이유로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던 항목을 이번 협상 범위에 포함하는 등 논의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들은 여기에 미국 기업에 대한 해킹 문제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또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만날 당시 무역협상 대상이었던 품목 142개 중 20%를 협상 불가 항목으로 정했으나, 양국이 논의를 거듭하면서 그 숫자가 크게 줄었다고 WSJ에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pasta@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연방의회 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재각재각...미 의회 2차 섯다운 막기 고군분투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상·하원 양당 의원들이 2차 연방정부 섯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줄다리기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6일 보도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자금 57억달러를 이번 연도 예산안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협상 중이다. 협상 마감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임시 준예산'(스톱갭) 법안이 유효한 2월15일까지다. 만일 이 때까지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25%는 다시 섯다운에 돌입한다.

더힐에 따르면 협상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물리적인 국경장벽에 금액을 얼마나 투입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이 사안이 협상 타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당초 양당 협상가들은 잠정적인 협상 시한을 오는 8일로 정했으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

인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8일까지 협상안의 윤곽이 드러나야 의회가 여러 사안을 고려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원에서는 법안 발의 후 3일 이상 지나야 표결할 수 있는 '72시간 규정' 때문에 양당의 협상안이 적어도 11일까지는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양당은 섯다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스톱갭 법안의 지속결의안(CR)을 통과시켜야 한다.

케이 그레이저(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8일까지 협상을 끝내라고 한다면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힐은 의원들이 주말 내내 밤낮없이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막후에서 협상이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pasta@news1.kr

무역분쟁으로 미국 농업벨트에서 파산신청 속출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미국 농업벨트의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데다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 경기둔화로 농산물 등 상품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미국의 농업벨트에서 파산보호신청이 속출하고 있는 것.

WSJ는 연방정부의 자료를 인용, 무역전쟁 발발 이후 모두 12개 농산

물 관련기업이 파산신청을 했으며, 이는 10년래 최고라고 전했다.

특히 인디애나, 일리노이, 위스콘신 등 농업주가 밀집돼 있는 제7 순회 법원의 파산신청 건수는 2008년 대비 100% 증가했다.

WSJ는 무역분쟁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부채 상승으로 파산신청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네브라스카 주의 농부인 커크 두엔싱은 "옥수수가격과 대두가격 하락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

신청을 했다"며 "파산신청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40년 동안 농업에 종사했지만 지금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이외에도 미국 농가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농업기술 혁명으로 산출량이 크게 증대됐다. 그러나 이는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sinopark@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관심한 준비하는 상담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mlee@mbamortgageco.com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WIFI 4K Compact size
Setup Box \$55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티보 대리점 모집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키네티켓,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 MI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독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TBO KBS MBC SBS tvN net Olive OCN YTN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안희정 재판부, '여중생과 성관계' 60대 남성은 무죄

"피해자 진술 일관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 아파트 동대표, 형편 어려운 10대 성폭행 혐의 기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과 쟁점도 같았고 판결한 재판부도 동일했지만 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다.

법원은 안전 지사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반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특히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정황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된 이모씨(60)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동대표인 이씨는 입주민인 A양(당시 15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가 밤늦게 퇴근한다는 것을 알고, 밥을 사주겠다

며 환심을 산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을 병원·학교에 수차례 데려다주며 진분을 쏟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바닷바람이나 쐬자'며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꽃축제 행사장에 들렀다가 한 공원의 공터로 데려가 겁을 먹은 A양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안희정 사건'처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였다.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에, 피해자인 A양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핵심이었다.

A양은 이씨가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 좋다.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다 소문내 버린다'고 말하며 겁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A양과 식사를 하고 축제 행사장에 들렀다 온 건 맞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주고 무죄를 선고했다. A양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고, 아파트 임시

동대표인 이씨는 A양의 자유를 제약할 만큼의 권세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이씨를 만나 식사를 하고 옷 선물을 받은 점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열린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가 맡았다. 지난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재판부다. 검찰은 "40세 이상 차이나는 이씨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위협했기에 A양이 겁을 먹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우선 "이씨가 A양을 성폭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의견을 밝혔다. A양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모르는 성 경험을 생생하게 진술하며, 이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씨가 A양에게 옷을 사주고 현금을 줬으며 4번이나 꽃축제에 다녀오면서도 A양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A양과 연락을 차단한 점에 대해 "단순히 A양을 딱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성폭력을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던 2심 재판부가 미성년자인 여중생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게 여긴 아파트 동대표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의심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씨가 A양을 성폭행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일부 범죄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회수에 대한 진술을 반복했고, 수사기관·1심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거나 모순되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5세의 청소년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알기 어려운 사실을 때

우 생생하게 진술하는 점을 보면 이씨가 성적 접촉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A양이 피해를 과장·윤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원이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따른 무죄 판단에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이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현재 이씨는 1심에서 구속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국가에 청구한 상태다.

themoon@news1.kr

"허벅지 대동맥 찢러라"...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혐의 포착

이혼 소송 돕는 아내 형부 살해 청부하며 3000만원 건네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직원 갑질폭행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양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 가을께 지인 A씨에게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정종교소속 종교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씨의 이 같은 청부살인 시도 이유는 아내의 형부가 이혼 소송을 도와주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양씨가 아내의 형부에 대해 폭력 교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양씨가) 아내 형부의 허벅지 대동맥을 찢러달라"고 자신에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게 살인을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A씨에게 약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실제 범행을 시도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양씨에게 돌려줬다.

양씨는 현재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양씨와 A씨의 진술이 엇갈린다.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씨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달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다.

이번에 살인예비음모 혐의가 추가돼 모두 7개가 됐다. hm0712@news1.kr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법정구속 끌어낸 특검 항소 더 무거운 형을

허의법, 김경수·드루킹 재판 각각 항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이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 또한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를 기소한 허의법 특검검사는 전날(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장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징역 2

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구속됐고 다음날(1월31일)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씨도 김 지사와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특검은 김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 김 지사 재판과 드루킹 재판 모두 쌍방상소로 2심으로 가게 됐다.

parksj@news1.kr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FEB. 8th - FEB. 14th, 2019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VALENTINE'S DAY FORTUNE COOKIES

LOVE IS IN YOUR FUTURE. SHARE IT. MAKE THESE CUTEST FORTUNE COOKIES FOR YOUR BAE!

H마트와 함께하는 사랑의 발렌타인데이! 귀엽고 짝직한 발렌타인데이 포춘쿠키로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보세요!

RESTAURANTEU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대한민국에 맛있는 레스토랑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CONTACT: mes@hmart.com

-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26.99** / box
- Lotus Root 연근 **\$1.99** / lb.
-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 / lb.
- Ginger 생강 **\$1.49** / lb.
-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 lb.
- Gobo 우엉 **\$1.99** / lb.
-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0.99** / ea.
- White Cabbage 화이트 케비지 **\$1.29** / lb.
- Tomato 토마토 **\$0.99** / lb.
-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Silky/Firm 14-16oz./pkg **\$0.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Boneless Beef Ribeye Steak 10oz 동심 스테이크 **\$9.99** / lb.
- Pork CT Butt Chunk 수육용 생채지육살 **\$4.99** / lb.
- Boneless Pork Loin Chop 동심 포삼 **\$4.99** / lb.
- Boneless Chicken Breast 뼈없는 닭가슴살 **\$2.49** / lb.
-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살균 양식 슬라이스 **\$7.99** / lb.
- Marinaded Slic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6.99** /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Head-on Shrimp 머리새우 30-35's **\$5.99** / lb. (FR/SAT/SUN ONLY 8/9/10 ONLY)
- Chilean Seabass Steak 칠리인 비베스 **\$19.99** / lb. (FR/SAT/SUN ONLY 8/9/10 ONLY)
- TONGTONGBAY Yellow Croaker 통통배 참크기 300-400's **\$4.99** / lb. (FR/SAT/SUN ONLY 8/9/10 ONLY)
- Headless White Shrimp 머리없는 흰새우 25-30's **\$6.99** / lb. (FR/SAT/SUN ONLY 8/9/10 ONLY)
- Head-on Patagonia Pink Shrimp 머리있는 차연산 홍새우 10-20's **\$6.99** / lb. (FR/SAT/SUN ONLY 8/9/10 ONLY)
- Cod Fillet 대구 전갈 **\$6.99** / lb. (FR/SAT/SUN ONLY 8/9/10 ONLY)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HARU HARU Medium Grain Mixed Rice 하루하루 마이밥 15 lb. **\$9.99**
- CJ Cooked White Rice CJ 찰반 박스 7.4oz x 12box/box **\$10.99**
- HAJOUREM Premium Roasted Seaweed 해오름 도지라김 0.15oz x 800/pkg **\$5.99**
- CHUNGJUNGONE Gochujang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순장 현미 대장소 밥고추장 6.6 lb. **\$14.99**

한국의 특이기술로 반부세없이 오래오래 밀랑밀랑 굳지 않는 떡

Our Rice Cakes Stay Soft for Longer

- 오떡 (ONDEOK) 1000/pkg
- 유떡 (YUDEOK) 1000/pkg
- 참떡 (JAMDEOK) 1000/pkg
- 참고로 떡볶이 (JAMDEOK) 1000/pkg

- KYONG CI Super Quality Medium Grain Rice 경기에 15 lb. **\$9.99**
- KADON Pure Sesame Oil 가래떡 참기름 28oz. **\$14.99**
- SHIRAKOKU Japanese Style Noodles San-Joya Udon 사라키우동 1.1oz x 50/pkg **\$3.99**
- MIZKAN Gligatsu Tsure Soup Base 에스칸 우동소스 18.1oz **\$3.99**
- PULMUNE Noodles Fire-Roasted Duck Breast Sauce 풀무원 치미 새장면 20.2oz **\$4.99**
- KIKKOMAN Soy Sauce 기꼬만 간장소스 1gal **\$12.99**
- CJ BEKSUL Sweet Korean Pancake Mix 내성 녹차맛 초콜릿믹스 Green Tea Flavor 14.1oz. **\$3.99**
- SAMJIP Steamed Bun 삼립 초빵 All Variet 6.5oz. **\$1.99**
- HWOBU Canned Bai Top Shell 흰오름 굴명미 14.1oz **\$5.99**
- HATAI Peanuts Crunch Snack Meddongsan 태대 맛동산 11.46oz **\$2.99**
- HAJOUREM Banana Flavored Milk Drink 해오름 바나나맛 우유 6.7oz. x 6/pkg **\$3.99**
- DR. LARK'S Argemol Argemol & Walnut Black Bean Soy Milk 경식콩 배지밀 아몬드 & 호두 검은콩 우유 15oz. x 2/pkg **\$10.99**
- KHAIUS Fan-Style Ceramic Heater 쿠하우스 세라믹 히터 **\$39.99**
- LAPCHHCELL Beauty Products 라포티셀 화장품 **\$12.99-22.99**
- Indoor Rabbit Slippers 트미 슬리퍼 **\$4.99**
- Star/Washable Slippers 국내서 입서블 스타 슬리퍼 **\$6.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omissions/typo.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45 Middle Temple, Burlington, MA 01803 TEL: 781-221-4371. ©2019 HMRP. Sun - Thur: Sun - 9am - 10pm - Sat: Sun - 10pm

북미 가장 원하는 것... 제재 해제 vs 영변핵 폐기 · 로드맵+α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북미 정상이 이달 말 베트남에서 다시 만난다. 현재 미국 측 실무협상팀은 평양에서 북한 측과 비핵화-상응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실무라인의 협상 결과를 갖고 북미 정상이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지난해 6.12 선포사에서 합의한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신뢰구축 조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 전 판문점에서 출퇴근하며 북미 실무팀이 접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평양에서 실무회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담에 대한 기대는 높다.

미국이 북측에 요구하는 점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엔진시험장 그리고 핵심인 영변핵시설 폐기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비건 대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과 10월 (미) 국무장관 방북

당시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며 "단순히 영변에 있는 시설 이외에도 이런 장소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영변핵시설 폐기와 검증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북한 전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신고와 폐기 약속도 원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혀 전체 핵목록 신고를 담은 비핵화 로드맵 작성을 원한다는 점도 전했다.

반면, 북한은 제재해제나 완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북한은 2016년 5월 노동당 7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결정했다. 이 계획은 2020년에 끝난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제재해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 금융기관의 차관을 들여오지 않으면 개발 목표는 실현되기 어렵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 "아직까지도 케케묵은 제재 나발을 불어대는 것은 대낮의 부엉이처럼 눈앞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자들의 가련한 몸부림"이라고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도 지난달 23일 "(미국은)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제재라는 다 삭아빠진 차 단봉을 가로질러놓고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기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

을 악을 쓰며 막아 나서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우선적으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유예나 완화 등 미국의 조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로 확약한 이상 외세와의 합동 군사훈련은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외부로부터

터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 등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군사 부문 요구사항도 전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7일 "미국은 (풍계리와 동창리, 영변핵시설만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요구하면 미국은 전체 로드맵과 추가적으로 농축우라늄 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allday33@news1.kr

설선물 최고 인기는 홍삼 135만원짜리 한우세트 완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엘빙트렌드' 확산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홍삼 등 건강 관련 상품이 올해 설 선물로 최고 인기를 누렸다. 135만원짜리 한우세트가 '완판'되는 등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소비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6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설 선물세트 본 판매 실적이 지난해 보다 4.6% 신장했다.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군은 전체 매출의 29.3%를 차지한 건강 상품군으로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1.17% 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홍삼 선물세트는 건강 상품군 매출 비중이 68%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매출은 전년 대비 30% 급증했다. 휴대성과 편의성이 좋아 '2030세대'가 즐겨찾는 스틱형 홍삼은 23% 신장했다.

정육·갈비로 이뤄진 축산 상품군은 전체 매출 비중 24.8%로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 비중이 0.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축산 상품군의 매출도 전년 대비 0.8% 감소했지만 평균 30만원이 넘는 갈비 선물세트는 10.5% 신장했다.

젓갈 상품군은 매출이 전년 대비 80.5% 급증해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젓갈·장 선물세트는 대부분



지난 1월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25일간 진행된 롯데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본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4.6%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의 상품들이 10만원대 이하라 가성비와 실용성을 추구하는 고객들이 많이 찾았다.

프리미엄 선물세트는 올해도 판매 호조를 보였다. 1++ 등급 한우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의 등심·안심·살치살 등으로 구성된 135만원짜리 'L-No.9' 세트는 지난해 설·추석에 이어 올해도 완판됐다. 250만원에 판매된 '영광 범성포 굴비세트 황제(굴비 10마, 2.7kg)'는 20세트가, 90만원에 선보인 호주산 와인 선물세트 'LT 울프블라스 플래티넘 블랙'은 80세트 판매됐다.

8만8000원에 선보이는 '동물복지 돈육세트', '흑돼지 돈육합세트'와 7만8000원에 판매한 '특수부위 돈육세트' 등 황금돼지해를 기념해 선

보인 '황금돼지해 기념 상품'도 인기를 끌었다. 황금색 라벨에 돼지가 그려진 'LT 울프블라스 2호(호주산, 20만원)'는 1200세트 모두 팔렸다. 황금색 돼지가 그려진 '탈로 프리미엄 티보'와 '신퀀타'로 구성된 'KY 이태리 럭셔리 1호(이탈리아산, 29만원)'도 준비한 2000세트가 완판됐다.

롯데백화점 임태춘 식품리빙부장은 "올 설에는 고객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한우, 홍삼세트 뿐만 아니라 돈육, 와인세트 등 황금돼지해를 기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인기였다"며 "특히 프리미엄 선물세트가 매년 호조를 보이고 있어 품목을 다양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brich@news1.kr

블랙핑크, 미 '레이트쇼' 출연 한국 아티스트 최초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블랙핑크가 '굿모닝 아메리카'에 이어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레이트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 출연을 확정했다.

美 CBS는 6일 블랙핑크가 오는 11일 미국에서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심야 토크쇼인 '레이트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에 출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레이트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는 미국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로, 첫 방송 당시 경쟁사 심야 토크쇼인 '지미 팰런 쇼'의 2배 이상, '지미 키멜 쇼'의 3배 이상 시청률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레이트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에드 설리번 극장(Ed Sullivan Theater)'에서 촬영된다. '에드 설리번 극장'은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가 미국 진출할 당시, 첫 데뷔 무대를 가진 장소로도 유명하다. 블랙핑크 또한 같은 곳에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레이트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에는 힐러리 클린턴, 레이디 가가, 라이언 레이놀즈, 저스틴 팀버레이크, 잭 블랙 등 유명 가수, 배우부터 영향력 있는 정치인까지 다양한 게스트가 출연했다. 또 폴 사이먼, 킬 웨인, 자넬 모네, 두아 리파 등 내로라하는 슈퍼스타들이 이 쇼에서 무대를 선보였다.

앞서 미국 ABC에서 방송되는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 GMA)'는 5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12일 블랙핑크가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블랙핑크는 오는 15일 'Strahan and Sara(GMA Day)'에도 출연한다.

hmh1@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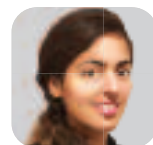
미니 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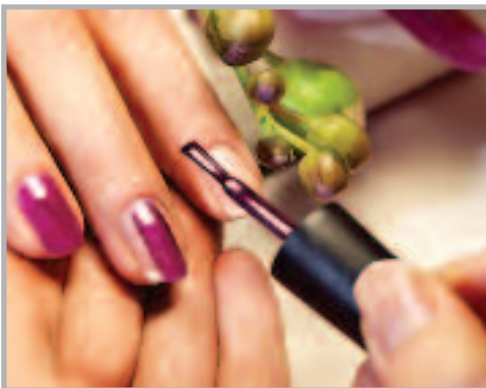
OUR LISTINGS



● **럭셔리콘도매매**

보스톤다운타운보스톤커먼 근처
2 Beds & 2 Baths 1378 Sq.Ft
Valet 주차, 루프탑, 수영장

Asking **\$1,650,000**



● **네일샵매매**

Price Reduced

보스톤북쪽, 3760 Sq. Ft
18 Chairs & 20 Nail tables
최고급시설

Asking **\$47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 **식당 매매**

Hibachi 테이블 & 스시바
풀 리퀘 라이선스, 2500 스퀘어피트
보스톤 북쪽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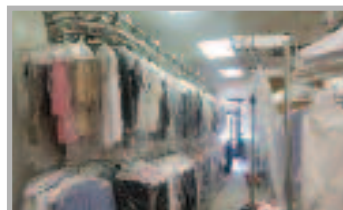
Asking **\$7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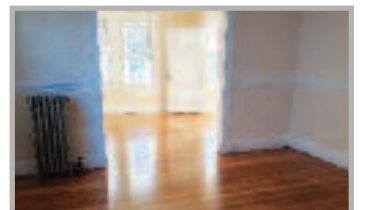
Asking **\$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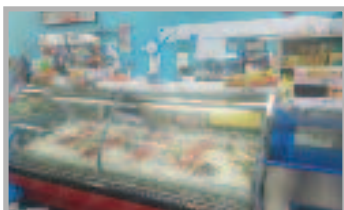
Asking **\$50,000**



● **주거렌트**

에버렛에 위치, 1125 Sq. Ft,
2 Beds & 1 Bath, 새로레노베이션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인접, 단기렌트가능

Asking **\$2000/월**



● **Fish 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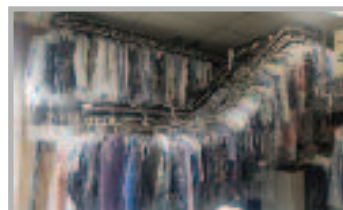
Asking **\$50,000**



●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특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Quan Xiao
617.504.2125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Rental
35 Lawrence Lane
Lexington, MA
Asking Price: \$3,150/mo
Listing Agent: Lisa Lee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2 Antique Circle, Sudbury, MA
Asking Price: \$929,000
Listing Agent: Bill Glanton
Phone: 978.394.2017



Just Listed: Single Family
171 Littleton County Road
Harvard, MA
Asking Price: \$2,750,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4 Duston Lane, Acton, MA
Asking Price: \$2,995,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Ken Tlagae
617.959.5500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Tracy Qin Zhao
401.369.2227



Just Listed: Single Family
65 Croton Street
Wellesley, MA
Asking Price: \$1,6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5 Carter Road
Burlington, MA
Asking Price: \$799,000
Listing Agent: NJ Kim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Restaurant w/ Liquor License
Tyngsborough, MA
Asking Price: \$145,000
Listing Agent: Ken Tlagae



Just Listed: Commercial Lease
17 Pelham Street
Newton, MA
Lease Price: \$4,500
Listing Agent: Janice Lee



Just Listed: Multi-Family
23 Everett Street
Boston, MA
Asking Price: \$850,000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Condominium
10 Charlesgate E - Unit 304
Boston, Back Bay, MA
Asking Price: \$1,150,000
Listing Agent: Vicky Xiao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M. Keith Peifer
304.963.2923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관상동맥 질환을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

심장은 심방과 심실, 판막, 관상동맥과 심장에 전기를 일으키는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방은 정맥으로부터 되돌아온 혈액을 저장하고 있다가 심실에 공급해주고, 심실은 피를 뿜어내어 전신 또는 폐로 순환시킨다.

심실이 수축하여 피를 뿜어낼 때 일정하게 동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것이 판막이다.

나이가 들면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위치한 대동맥판막이 좁아져 잘 열리지 않는 협착이 발생하게 된다.

대동맥판막 협착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피를 내보내기 힘들어져

심장의 근육은 두꺼워지게 되고, 호흡 곤란, 폐부종 등 심부전 증상과 반복적인 실신 및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령 환자의 흉곽을 열지 않고도 대퇴부나 어깨 쪽 혈관을 통해 인공판막을 경피적으로 삽입하는 시술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관상동맥 질환을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겨울철 더 위험한 관상동맥 질환

건강한 사람도 겨울 혹한은 견디기 쉽지 않다. 만성질환, 특히 심장에 악영향을 주는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다면, 겨울은 사계절 중 최악의 시기가 될 수 있다.

한 사람의 혈관은 그가 살아온 궤적을 담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 안쪽에 지방 등이 쌓여 혈관이 좁아진다. 추운 날씨로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지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압이 오른다. 혈전에 막혀 심장에 혈액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심장운동에 장애가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기능이 멈춰 심근경색이 오고, 제때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한다.

관상동맥 질환은 일단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평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근경색은 최악의 경우 돌연사하고, 뇌졸중은 목숨을 건진다 해도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으로 환자 가족 모두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다.

가족 중 심뇌혈관 질환을 앓았거나 이로 사망한 경우가 있다면 가족력이 분명한 만큼 건강할 때부터 적극적인 예방관리에 힘써야 한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병인이 있다면 더욱 세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문제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개는 그렇지 않지만, 발병 직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질환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병을 숨기기도 한다. 건강검진을 통해 드러난 관상동맥 질환 징후마저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

정기 건강검진으로 조기발견 가능

필자의 부친은 심근경색을 철저히 숨겼다. 가족은 물론 1차 의료기관 의사마저 눈치 채지 못했다. 당신도 한계에 다다랐는지,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서도 왜 가지는는 함구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기록적인 폭설과 흑한이 엄습했던 2010년 1월 어느 날 병원 입원을 며칠 앞두고 운명을 달리했다. 임원이 예정됐던 대학병원은 장례식장이 됐다.

그런가 하면 필자 회사의 한 고위 임원은 평소 건강을 자신했다. 그 임원은 올 5월께 필자와 인사 나눈 지 이틀 후 가슴에 심한 통증이 와 진료 받으러 간 대학병원 엘리베이터에서 급성심

근경색에 따른 심정지로 쓰러졌다.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조치, 스텐트 시술, 저체온 치료 등을 통해 3일 만에 깨어났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누군가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남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관상동맥질환. 환자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방심해선 안 되는, 의사를 믿고 함께 해야 할 이유다. 이제부터라도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예방에 주력하고, 정기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해 관리하면 관상동맥 질환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49-1766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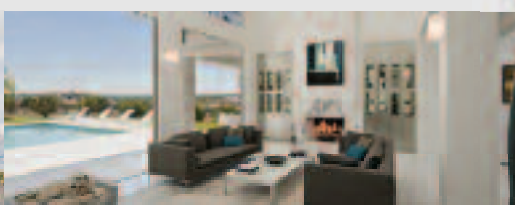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은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 | |
|-------------------------------------------------------------------------------------------------------------------------------------------------------------------------------------------------------------------------------------------------------------------------------------------------------------------------------------|----------------------------------------------------------------------------------------------------------------------------------------------------------------------------------------------------------------------------------------------------------------------------------------------------------|
|  <p>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p> <p>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p> <p>ASKING \$899k - 1199k</p> |  <p>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p> <p>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p> <p>ASKING \$600,000-\$800,000</p> |
|-------------------------------------------------------------------------------------------------------------------------------------------------------------------------------------------------------------------------------------------------------------------------------------------------------------------------------------|----------------------------------------------------------------------------------------------------------------------------------------------------------------------------------------------------------------------------------------------------------------------------------------------------------|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 | | |
|--------------------------------------------------------------------------------------------------------------------------------------------------------------------------------------------------------|---------------------------------------------------------------------------------------------------------------------------------------------------------------------------|----------------------------------------------------------------------------------------------------------------------------------------------------------------------------------|
|  <p>단독 건물 매매. 세탁소 포함 오너 파이낸싱 가능 보스턴 남쪽</p> <p>ASKING \$480,000</p> |  <p>보스턴 남쪽, 세탁소 매매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60,000</p> |  <p>Boston 주변의 바쁜 지역 downtown 10분거리 성업중인 laundromat</p> <p>ASKING \$450,000</p> |
|  <p>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unlimited potential</p> <p>ASKING \$170,000</p> |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p> <p>ASKING \$375,000</p> |  <p>NH 대형 몰 안에 위치 8 Manicure, 9 pedicure 성업 중인 Nail salon</p> <p>ASKING \$150,000</p> |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Anna Jung
617.780.1675



Sung Bin Oh
978.505.3736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SOLD

1. 퀴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 | | |
|----------------------------------------------------------------------------------------------------------------------------------------------------------|--------------------------------------------------------------------------------------------------------------------------------------------------------|--------------------------------------------------------------------------------------------------------------------------------------------------|
|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ASKING \$130,000</p> |  <p>보스턴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70,000</p> |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ASKING \$200,000</p> |
|----------------------------------------------------------------------------------------------------------------------------------------------------------|--------------------------------------------------------------------------------------------------------------------------------------------------------|--------------------------------------------------------------------------------------------------------------------------------------------------|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건국 주요 전화

| | |
|------------------|--------------|
| 가정폭력상담소(Ex. 33) | 617-338-2352 |
| 건인 | 800-632-8075 |
| 고등교육위원회 | 617-727-7785 |
| 고등교육정보센터 | 800-442-1171 |
| 공중위생국 | 617-624-6000 |
| 구세군 | 617-536-7469 |
| 국제청 | 800-829-1040 |
| 날씨문의 | 617-976-6200 |
| 로건국제공항 | 800-235-6426 |
| 미야치기 | 888-477-6721 |
| 백베이역 | 617-345-7958 |
| 보스톤공립학교 | 617-635-9000 |
| 보스톤수도 | 617-989-7000 |
| 보스톤시청 | 617-635-4500 |
| 보스톤총영사관 | 617-641-2830 |
| 사우스역 | 617-345-7958 |
| 사회보장국 | 800-772-1213 |
| 성폭행 | 781-237-9110 |
| 성폭행 | 617-492-8300 |
| 시간문의 | 617-637-123 |
| 야동보호 | 617-748-2000 |
| 야동학대 | 800-792-5200 |
| 알코올/마약 | 617-445-1500 |
| 여성학대 | 617-248-0922 |
| 우선연허 | 617-351-4500 |
| 웰페어 | 617-348-8500 |
| 자원봉사 | 800-522-8086 |
| 적십자 | 800-564-1234 |
| 전화신청 (Verizon) | 800-941-9900 |
| 전화요금정보 (Verizon) | 617-555-1515 |
| 택시 | 617-343-4475 |
| AAA | 800-222-4357 |
| FBI | 617-741-5533 |
| MBTA | 800-392-6100 |
| NSTAR가스 | 800-572-9300 |
| NSTAR 전기 | 800-592-2000 |
| RCN케이블TV/전화 | 800-746-4726 |

한인회

| | |
|-----------|--------------|
| 뉴잉글랜드 한인회 | 781-933-8822 |
| 뉴햄프셔 한인회 | 603-767-1356 |
| 로어일랜드 한인회 | 401-368-0467 |
| 메인한인회 | 207-756-0092 |
| 버몬트 한인회 | 802-734-2521 |

주요 단체

| | |
|----------------|--------------|
|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 | 978-407-7554 |
|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나) | 603-889-8201 |
| 뉴잉글랜드골프협회 | 617-438-9763 |
| 뉴잉글랜드공공전우회 | 978-902-8305 |
| NE교역자협의회 | 978-394-3060 |
| 뉴잉글랜드선교연합회 | 978-688-3137 |
| 뉴잉글랜드선교회 | 774-270-1948 |
| 뉴잉글랜드선교연합회 | 508-962-2689 |
| 뉴잉글랜드교회연합회 | 978-394-3060 |
|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 617-833-1360 |
|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 603-894-5425 |
| 민주평등보스톤협의회 | 413-535-0916 |
| 보스톤 대한체육회 | 781-326-9009 |
| 보스톤산악회 | 978-569-3256 |
| 보스톤한미노인회 | 978-994-5490 |
| 재미과학기술자협회 | 857-998-7043 |
| 재향군인회 | 781-854-8880 |
| 세탁인협회 | 508-826-5270 |
| 이북5도도민연합회 | 978-514-3399 |
| 한인학교N연합회 | 781-424-5269 |
| F자민중교회연합회 | 401-481-4900 |
| 한국인양자동행(메인) | 207-878-5652 |
| 6.25참전유공자회 | 978-725-9597 |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 781-367-5993 |

동향 향우 동호회

| | |
|------------|--------------|
| 건국대학교동창회 | 401-738-8735 |
| 경기고등학교동창회 | 508-995-7242 |
| 경기여고동창회 | 781-861-0437 |
| 경복고동창회 | 617-921-8799 |
| 고려대학교 교우회 | 617-780-2999 |
| 뉴잉글랜드선교회 | 774-270-1948 |
| 배려중고등학교동창회 | 978-474-4780 |
| 보스톤 선교회 | 978-569-3256 |
| 보스톤한인사회관 | 617-789-4964 |
| 산사랑 | 774-270-1948 |
| 서경대동문회 | 617-599-9869 |
| 서울고 동문회 | 617-792-2635 |
| 서울대학교동창회 | 978-821-9434 |
| 서울대학교동창회 | 617-780-7205 |
| 성균관대동창회 | 802-734-2521 |
|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 508-541-6969 |
| 이화여고동창회 | 617-277-0730 |
| 이화여대동창회 | 978-390-1552 |
| 중앙대학교동창회 | 603-622-8883 |
| 강원대 동문회 | 617-875-1801 |
| 충청향우회 | 678-717-8800 |
| 한양대 동문회 | 781-548-9052 |

언론

| | |
|-----------------|--------------|
| 보스톤코리아 | 617-254-4654 |
| 한인일보 | 781-933-8822 |
| 한국일보(뉴욕) | 718-482-1111 |
| Grapevine Times | 781-548-9945 |

종교

| | |
|--------------|--------------|
| 기독교 | |
| 구세군 물동교회 | 617-792-8780 |
|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 603-430-2929 |
|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 617-913-3074 |
| 나사렛사립교회 | 781-439-1840 |
| 낮아짐교회 | 781-832-2014 |
| 뉴잉글랜드감리교회 | 617-969-0507 |
| 뉴턴 아름다운 교회 | 617-869-8159 |
| 갈보리교회 | 413-789-9888 |

| | |
|-------------|--------------|
| 구세군물동교회 | 617-792-8780 |
| 그리스연합감리교회 | 203-459-8517 |
| 그리니치연합교회 | 203-861-1134 |
|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 603-430-2929 |
| 나사렛사립교회 | 781-439-1840 |
| 내수아연합교회 | 603-888-8040 |
| 뉴잉글랜드감리교회 | 617-969-0507 |
| 뉴잉글랜드한미교회 | 413-567-9142 |
| 뉴턴 아름다운 교회 | 617-869-8159 |
| 뉴햄프셔감리교회 | 617-990-7619 |
| 뉴햄프셔장로교회 | 603-437-5134 |
| 뉴햄프셔한인교회 | 603-264-6799 |
| 라이코교회 | 978-387-1115 |
| 라이스한인침례교회 | 508-926-8236 |
| 로어일랜드장로교회 | 401-353-0983 |
| 로어일랜드제일교회 | 401-944-0520 |
| R대생명의길장로교회 | 401-821-2311 |
| 메리맥 교회 | 978-806-1363 |
| 목양교회 | 617-223-1690 |
| 무지개교회 | 207-774-1617 |
| 말할한인교회 | 978-244-0691 |
| 렉싱턴 풍성교회 | 617-953-0856 |
| 버클랜드 침례교회 | 617-864-5948 |
| 보스톤 국제교회 | 617-459-6479 |
| 보스톤 감리교회 | 781-393-0074 |
| 보스톤 사랑교회 | 617-285-8800 |
|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 978-844-2404 |
|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 617-715-0571 |
| 보스톤 새로남교회 | 978-947-6765 |
| 보스톤 새생명교회 | 978-777-1800 |
| 보스톤 생명의 교회 | 978-578-6987 |
| 보스톤서부장로교회 | 781-894-3958 |
| 보스톤 성결교회 | 781-275-8233 |
| 보스톤 한울교회 | 781-396-1004 |
| 보스톤 소망교회 | 781-686-5526 |
| 보스톤시온성교회 | 781-275-1763 |
| 보스톤안식교회 | 781-279-3270 |
| 보스톤 온누리교회 | 781-933-7044 |
| 보스톤웨슬리안교회 | 781-393-0004 |
| 보스톤 장로교회 | 508-435-4579 |
| 보스톤 제일교회 | 617-458-2733 |
| 보스톤 주님의교회 | 617-966-9608 |
| 보스톤 중앙교회 | 617-230-5004 |
| 보스톤필그림교회 | 857-636-9985 |
| 보스톤 한인교회 | 617-739-2663 |
| 보스톤 한우리교회 | 978-454-0454 |
| 보스톤한인연합교회 | 617-923-9581 |
| 북부보스톤감리교회 | 978-470-0621 |
| 비전교회 | 617-308-2391 |
| 새빛교회 | 781-652-0001 |
| 새예루살렘교회 | 774-249-0022 |
| 선한목자장로교회 | 904-400-9386 |
| 성요한 교회 | 781-861-7799 |
| 순복음 보스톤교회 | 617-413-5372 |
|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 413-789-4522 |
| 스프링필드제일교회 | 413-781-2477 |
| 선한목자교회 | 401-739-8439 |
| 안디옥 교회 | 978-534-3394 |
| 열방교회 | 617-620-3352 |
| 에이더 벨렘교회 | 413-274-2369 |
|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 413-549-6495 |
| 엘리스 시온교회 | 413-549-9200 |
| 엘스톤한인교회 | 617-642-7403 |
| 우스터 교회 | 508-799-4488 |
| 우스터장로교회 | 781-354-1843 |
| 위스프룬터 교회 | 918-876-2815 |
| 임마누엘 연합교회 | 978-394-3060 |
| 자연교회 | 603-437-6151 |
| 좋은땅교회 | 978-930-6613 |
| 지구촌방주교회 | 617-838-6434 |
| 케임브리지한인교회 | 617-491-1474 |
|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 781-861-3877 |
| 퀸시영장로교회 | 617-770-2755 |
| 하바드 한인교회 | 617-441-5211 |

간판

| | |
|-------|--------------|
| 초이스간판 | 617-470-1083 |
|-------|--------------|

건강식품

| | |
|-------------|--------------|
| 보스톤정판브랜드스우어 | 781-238-0303 |
|-------------|--------------|

건축

| | |
|------------------|--------------|
| 글로벌건축 | 617-645-6146 |
| 김원태 건축사 | 617-620-8242 |
| 미남건축 | 508-650-8844 |
| 선아건축 | 508-230-5878 |
| 솔로몬 DRYWALL | 978-761-0623 |
| 신중축 루미사이딩 청문 | 617-999-9616 |
| 이늘드 건축 | 617-833-1360 |
| 파인원건축 | 617-688-6833 |
| 한샘(주) | 781-487-0101 |
| ECO Construction | 781-608-2971 |
| E/Y 건축 | 617-590-3472 |
| J.C건축 | 781-738-7871 |
| J&D 인테리어 | 617-645-6661 |
| LEE'S건축 | 617-538-0558 |

골프 개인

| | |
|-----------|--------------|
| 골프 개인 PGA | 617-458-2733 |
| 골프스쿨 | 617-775-5527 |
| 남궁연골프교실 | 978-474-4780 |
| ABC골프 | 603-401-7990 |

최후준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 | |
|-------------------|--------------|
| 김영일 회계사 | 617-901-0707 |
| 김창근 세무사 | 781-935-4620 |
| 노성일공인회계사 | 781-863-2232 |
| 이현주 회계사 | 781-944-2442 |
| Hana Rehab Clinic | 617-455-8073 |
| 정진수회계사 | 508-584-5860 |
| 한미회계사 | 617-792-2355 |
| 한성회계사 | 617-283-7151 |

꽃

| | |
|-------|--------------|
| 미스타화원 | 617-666-3116 |
| 데코플라워 | 617-875-0648 |
| 앤더슨꽃집 | 781-894-1843 |

금융/모기지

| | |
|------------|--------------|
| 인디펜던트(투영역) | 617-777-2929 |
| 에이저 리 | 781-591-2722 |
| 이중수파인뱅크 | 617-799-6158 |

냉동/에어컨/히팅

| | |
|-------------|--------------|
| JK 플러밍 | 978-303-7000 |
| Nirvana Air | 508-473-3429 |

노래방

| | |
|-------|--------------|
| 진 노래방 | 617-782-9282 |
|-------|--------------|

도서관

| | |
|-----------|--------------|
| 뉴햄프셔한인도서관 | 603-644-1991 |
| 보스톤공립도서관 | 617-539-5400 |

당구장

| | |
|--------|--------------|
| 울스타당구장 | 617-782-0969 |
|--------|--------------|

동물병원

| | |
|-----------|--------------|
| 김문소 동물병원 | 978-649-6513 |
| 윤상태 동물병원 | 978-343-3049 |
| 제임스킴 동물병원 | 978-658-5282 |

떡/잔치/반찬(주문)

| | |
|-------|--------------|
| 형제떡집 | 978-343-6080 |
| 장흥식주문 | 781-648-0584 |
| 한이음 | 617-547-8723 |

미용실

| | |
|-----------------------|--------------|
| 가위소리 | 617-782-8111 |
| 그레이스스킨케어 | 978-468-0039 |
| 그레이스커팅클럽 | 617-331-1011 |
| 뷰티풀 헤어살롱 | 857-284-3879 |
| 세리 미용실 | 781-676-7374 |
| 압구정동열골방 | 617-437-0378 |
| 웨스트메인헤어 | 508-734-0446 |
| 티케이헤어디자인 | 508-768-7675 |
| 프로그레스헤어디자인 | 978-772-7886 |
| 헤어 스펀 | 617-787-1735 |
| 헤어 크리 | 617-773-1220 |
| 헤어 Collage | 617-354-4660 |
| 미용실 코리아LEE | 617-913-3559 |
| AYER BEAUTY SALON | 978-772-6555 |
| 최지혜헤어(Bless Image) | 617-818-5596 |
| 헤어엔드그레이스살롱 | 508-879-7777 |
| MIN-AH MAKEUP | 508-617-7122 |
| Scotty's of Lexington | 718-861-1277 |

돌상 대여/폐백

| | |
|------|--------------|
| 해피돌상 | 617-249-3131 |
| 폐백 | 978-688-0929 |

방송국

| | |
|-----------|--------------|
| 엔티비보스톤사업국 | 617-955-9112 |
|-----------|--------------|

변호사

| | |
|-------------------|--------------|
| 김공석특허변호사/변리사 | 617-239-0839 |
| 김성근 변호사 | 781-438-6170 |
| 김성희 변호사 | 617-884-0002 |
| 김연진변호사 | 617-742-7707 |
| 김성근 변호사 | 781-438-6170 |
| 김성희 변호사 | 617-884-0002 |
| 김연진변호사 | 617-742-7707 |
| 박현종특허변호사 | 978-474-8880 |
| 성기주변호사 | 617-504-0609 |
| 스티브 서변호사(이민법) | 203-852-9800 |
| 워드랜드/엑스켄변호사 | 203-324-6155 |
| 장우석 변호사 | 781-712-1706 |
| 정선진변호사 | 617-230-0005 |
| 피터변호사 | 203-386-0503 |
| JOHN DOWNEY 법률사무소 | 647-964-5809 |
| STEVEN S. KIM 변호사 | 617-879-9979 |
| Joy Lee 변호사 | 617-624-0292 |
| Young Lee Danesh | 617-367-4949 |

병원

| | |
|------------|--------------------|
| 가정의 | |
| 그레이스 김 가정의 | 978-475-5656 |
| 내과 | |
| 송민근 | 617-696-7600 |
| 허버드병원(이재용) | 617-421-2282 |
| 한서동내과 | 401-722-0305 |
| 한성식내과 | 978-854-6376 |
| 산부인과 | |
| 최의웅산부인과 | 401-726-0600 |
| 이윤노산부인과 | 508-427-3000 |
| 소아과 | |
| 장경이 소아과 | 978-687-2119 |
| 심리상담 | |
| 배주은심리상담사 | 617-566-1055 |
| 심리상담 | |
| 김자향심리치리사 | 781-769-8670 x6080 |

한미아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 | |
|-------------------|--------------|
| 임나경심리상담사 | 617-738-9622 |
| 재활의학 | |
| 가족클리닉로병원 | 781-365-1876 |
| 닥터스중증병원 | 617-731-1004 |
| 성진우척추신경전문 | 978-688-6999 |
| 추 남남 D.C. | 617-230-4250 |
| Hana Rehab Clinic | 617-566-1199 |
| 보스톤컨선테드케어 | 617-277-0648 |

치과

| | |
|-----------------------|--------------|
| 김동원치과 | 978-689-9363 |
| 김정규 치과 | 860-623-2601 |
| 브라이언윤치과 | 978-655-1583 |
| 신영목 치과 | 617-265-5606 |
| 안 치과 | 781-647-8000 |
| 엑셀패밀리덴탈 | 617-471-6970 |
| 이영완치과 | 508-987-8228 |
| 이요셉치과 | 781-431-7295 |
| 캠브리지덴탈 | 617-492-8210 |
| 케임브리지덴탈/비즈 | 617-871-1482 |
| 퀸지아치과 | 617-471-2184 |
| 송영권치과 | 978-459-0594 |
| 스프링필드덴탈그룹 | 617-576-5300 |
| 한은애교정치과 | 781-894-1127 |
| 아이콘덴탈 | 781-861-8978 |
| ASHLAND FAMILY DENTAL | 508-881-7272 |
| 장승희보철임플랜트 | 617-489-1470 |
| 전문치과 | 401-729-2711 |
| Smart Dental | 781-322-4914 |
| ACTON 살롱치 | 978-263-4592 |

기타

| | |
|-----------|--------------|
| 메모리리뷰(병리) | 203-330-8080 |
|-----------|--------------|

보스톤 전망대

자작나무와 Jon Carter Covell 박사 1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신문에 한국미술에 관해 정기적으로 칼럼을 쓴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대단한 저서를 남기고 있다. "Korean Cultural Roots"와 "Korean Impact on Japanese Culture"라는 영문책이다. 그녀는 한국을 한국인보다 더 사랑했던 미국인이었다.

Jon Carter Covell (1912~1996) 박사가 한국 문화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 동기는 그녀가 1978년 하와이 대학을 정년 퇴임한 다음이었다. 1978년 하와이 대학을 정년 퇴임한 다음 날 풀브라이트 연구기금을 받은 경력 교수 자격으로 한국에 올 때는 6개월 정도 체류하게 될 것을 예상했었다. 그런데 막상 한국 문화 현장에 발을 들여 놓게되자 그동안 그녀가 알아왔던 일본 것과 중국의 미술품들이 한국을 떠나갔거나, 한국인 예술가들의 손에서 만들어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에 있는 많은 미술품들이 사실 한국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카터 코벨 박사는 한국 문화 유산을 제자리에 찾아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9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것마저도 그녀의 건강 때문에 떠나야 했던 것이다.

1981년 코리아 타임스에 쓴 글 "내가 컬럼비아 대학에서 배운 일본사는 가짜였다" 를 시작으로 7권의 책과 1,400편의 글을 집필하였다. 일본 역사가 저지른 가장 큰 거짓말은 가야에서 온 부여족이 왜를 정복한게 아니라 왜가 가야를 정복했다는 거짓말이었다. 일본의 이처럼 수많은 역사 왜곡을 알게 된 코벨 박사는 왜곡된 역사를 규명하려고 그의 마지막 일생을 바치게 되었다. 그녀는 그동안 배워온 한국, 중국, 일본의 예술사 전반에 걸친 재성찰의 기회를 한국이 동남아 문화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다. 존 카터 코벨은 Oberlin 대학에서 함께 일본사를 배운 Edwin Reischauer가 한국 미술을 두고 "중국 문화의 변방 아류" 라고 한 말이 그릇된 시각에서 나온 것임을 간파하고 이를 공박하는 장문의 편지를 쓴 적도 있었다. 그는 거의 10여년에 걸쳐 한국에 체류하

며 "부여족과 삼국시대" "한국무속" 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가 만들어낸 저서가 "한국 문화 유산" 이었다.

한국 무속에서 아주 중요한 자작나무는 5세기에 이르러 아름다운 신라 금관으로 만개하였고 형상화된 우주목은 바로 자작나무 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한국 무속의 풍습에서 전승된 자작나무의 흔적이 곳에 남아있다는 논거를 전개한 사람이 바로 카터 박사였다. 우리 나라에서 자작 나무가 자라는 지역은 개마고원이 유일하였다. 함경도 개마고원 사람들은 사람이 사망하면 시신을 칠성판에 눕히고는 자작나무 껍질로 싸서 매장하였다. 시베리아 무속에서 샤먼이 하늘 높이 있는 신령과 대화하는데 자작나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시신이 신령의 땅으로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자작나무 껍질로 싸는 것이다.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다고 한다. 자작나무는 알타이 민족이 신성시하던 나무로 우리 민족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지켜온 민족의 나무였던 것이다.



천마동 천마도

〈천마도〉

1973년 경주 대릉원 천마총 발굴당시 말안장 양쪽에 달아 느려 뜨린 말다래 (장니)가 자작나무 껍질을 합판처럼 겹을 엮갈리게 겹쳐서 피매 만든 것을 알게되었다. 우리는 이 자작

나무 껍질이 무려 1,500년의 긴 세월을 썩지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에 놀람을 금할 수 없었다. 자작나무는 신라 국내에서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다.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로, 틀림없이 북방에서 구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구태여 자작나무를 고집해서 천마도를 만들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장니의 표면 둘레에는 너비 10cm 범위 안에 흑색, 주황, 백색으로 채색한 인동당초 무늬를 그려놓고 중앙에는 하늘을 나는 백마를 그려놓고 있다. 백화수피 채화판은 6장의 선형판을 연결시켜 각판에 서조도를 그렸고 기마인물도 채화판은 8장으로 각 판에 기마인물을 그렸다. 참고로 부여하지만 천마총의 천마도 백마였고, 박혁거세의 탄생 신화 역시 백마로 시작하였다. 감속성 정가갑 5호 고분 벽화도 백마였다.

우리나라에는 천마를 그린 천마도가 딱 하나 뿐인데 바이칼 지역에는 집집마다 천마도를 그려놓고 있다. 모두가 백마로 일관하고 있다. 카자크스탄의 "카자크" 는 백마라는 뜻인데 그대로 나라 이름이 되 버렸다. 알타이에서 백마는 선과 행운을 상징하고 흑마는 악과 불행을 상징한다고 한다. 페르시아 지역 역시 백마는 행운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백마 숭배 사상은 알타이 지역의 보편적인 풍습이 되어왔다.



바이칼에는 집집마다 천마도가 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전상품 무약정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Nazarene Parish of Central District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예비신자 교리반
9월 26일(수) 8pm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f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당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 교회 예배 안내 | |
|----------|-------|
| 주일 예배 | 오후 2시 |
| 주일 학교 | 오후 2시 |
| 전도인 공부 | 오후 4시 |
| 화요 공부 | 오후 7시 |
| 수요 예배 | 오후 7시 |
| 구역 예배 | 각 구역별 |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 | |
|--------------|---------------|
|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
| 중고동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당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고객센터 1-877-689-1541



더 따뜻하고 쾌적하게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Comfort-Mate™

- 쾌적한 수면을 통한 건강한 삶**
최우 온도를 각각 17~65도 세밀하게 조절 가능한 분라난방 기술로 서늘기 원하는 최적의 온도에서 쾌적한 수면을 즐기세요
- 감각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
무단행위로 프리미엄 라이프를 완성하고 따뜻하고 건강한 생활을 즐기세요
- 쾌적한 수면을 통한 건강한 삶**
전지파와 호스가 없는 무독성 소재의 매트와 수면 소지에 대한 카바가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 2년 무상 품질 보증 프로그램**
경동 나비엔 마루방인에서 모든 재물을 2년 무상 보증해 드립니다



• 한국 보일러 제조사 중 매출액 1억2017년 운영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 한국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65.8% 차지(2018년 상반기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극한직업', 천만 넘었다...韓 영화 역대 18번째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영화 '극한직업'(감독 이병헌/배급 CJ엔터테인먼트)이 개봉 15일만인 6일 천만 영화에 등극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극한직업'은 6일 낮 12시25분 누적 관객수 1000만 3087명을 달성했다. 이로써 '극한직업'은 한국영화로는 '명량' '신과함께-죄와 벌' '국제시장' 등과 함께 역대 18번째 천만 영화이자, '아바타'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등 외화를 포함해 역대 23번째 천만 영화 대열에 합류했다. 코미디 영화로는 '7번방의 선물'(2013/1280만)에 이어 6년 만에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됐다. CJ엔터테인먼트는 '해운대' '광해' '명량' '국제시장' '베테랑'에 이어 6번째 천만 영화 배급작을 보유하게 됐다.

'극한직업'은 지난 1월23일 개봉과 동시에 36만명을 보았고 상영되는 보름 동안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다. 이후 설 연휴가 시작된 2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역대급 웃음 신드롬과 함께 매일 100만명 전후의 관객을 모으며 천만 관객 돌파에 성공했다. 15일만에 천만 관객을 동원한 '극한직업'의 흥행 속도는 '명량'(12일) '신과

함께 인과 연'(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다.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은 '함께 세요, 병헌씨'(2012), '스물'(2014), '바람 바람 바람'(2017)에 이어 본인의 4번째 장편 연출작만에 천만 감독 대열에 합류했다. 이병헌 감독은 "얼떨떨하다. 함께 작업하며 고생한 스태프, 배우들과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어 행복하고 무엇보다 관객분들께 감사하다"며 천만 돌파 소감을 전했다.

류승룡 또한 자신의 출연 작품 중 '광해' '7번방의 선물' '명량'에 이어 4번째 천만 영화를 배출했다. 몸을 아끼지 않는 열연으로 웃음과 액션을 동시에 선보인 이하늬, '범죄도시'의 위성탁과 180도 다른 연기 변신에 성공한 진선규, '응답하라 1988' '부러더' 등을 통해 예열시킨 코믹 본능을 제대로 발산하며 총무로 블루칩으로 떠오른 이동휘, 영화에서 신선한 웃음을 선사한 '명몽미' 공명까지 모두가 주연작으로는 첫 천만 영화를 기록하는 행운을 안았다.

영화가 흥행하면서 '극한직업' 속 고반장(류승룡 분)의 명대사인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는 일약 국민 유행



어가 될 조짐이다. 해당 대사를 패러디한 "지금까지 이런 00은 없었다" 혹은 "이것은 00인가 00인가"식의 언어 유희들이 영화의 흥행과 함께 SNS에 급증하고 있다. 또한 수원에서 실제 '수원왕갈비 통닭' 메뉴가 등장하는가 하면 수원시에서도 영화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 지역 명물 음식 알리기에 나섰다.

'극한직업'의 흥행 요인은 '순도 100% 웃음'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제대로 웃기고 싶었다"고 연출 의도를 밝힌 바 있는 이병헌 감독 특유의 말맛 코미디와 완벽한 팀케미로 캐릭터를 완성해 낸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이 어우러지며 실재 없이 터지는 웃음을 선사했다. 더불어 각자 극한의(?) 생업 전선에서 살고

있는 관객들이, 형사와 소상공인으로 잔내 나는 일상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반전 활약상을 보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평들이 많다. N차 관람 열풍은 물론, 중장년까지 관람층이 확대될 경우 '극한직업'의 신드롬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ichi@news1.kr

2월 10일 - 2월 16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생기가 도는

- 운수: 생기가 도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프던 사람은 점차 몸이 나아집니다. ● 금전: 평소 때보다 머리가 맑아지니 판단력도 상승합니다. 금전관리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행복도 커집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2, 16일 길일, 11, 14일 주의.

소띠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 운수: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금전: 막대한 기대감으로 기다리지 말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몇 %인지 수치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보는 것이 편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표정관리를 잘하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13, 16일 길일, 12, 15일 주의.

범띠 | 묵묵히 의연하게

- 운수: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 리를 간다는 말처럼 지금 내가 베풀면 그 덕을 여러 사람이 보게 됩니다. ● 금전: 묵묵히 의연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해온 사람에게는 보상은 것 같은 일이 생깁니다. 금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 애정: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대가 드디어 내 인생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1, 14일 길일, 13, 16일 주의.

토끼띠 | 귀한 정보를 얻는

- 운수: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말이 있듯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마음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처음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인내심을 가지세요. 대화를 나누다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2, 15일 길일, 14, 16일 주의.

용띠 | 가속도가 붙는

- 운수: 간절하게 원하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점차적으로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 금전: 그동안 해오던 일에 가속도가 붙는 운세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매력에 내 눈에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들어 갑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1, 16일 길일, 10, 15일 주의.

뱀띠 |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 운수: 늦춰서 좋은 일이 있고 미루고 늦추다가는 낭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멈추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 금전: 외모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일과 관련해서 잘못 판단하면 손해로 연결됩니다. ● 애정: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빨리 치료되지 않고 흉터로 남아 오랜 시간 영향을 주는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4, 15일 길일, 10, 16일 주의.

말띠 | 믿어주는 만큼 좋은 결과가

- 운수: 내려놓기 전에는 큰 일이 날 것 같아도 막상 손에서 내려놓으면 아무 일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 금전: 돈벌이로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다 보면 돈이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 애정: 잘 할 것이라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주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0, 15일 길일, 11, 14일 주의.

양띠 | 꼼꼼하게 체크하고

- 운수: 다소 귀찮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 금전: 자금회전이 잘 되지 않아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현금을 준비해주세요. ● 애정: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큰 용기를 내어 원가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1, 14일 길일, 10, 15일 주의.

원숭이띠 | 한 번 더 생각해야

- 운수: 그 어떤 일도 지나고 나면 허무한 꿈에 불과하니 당장 생긴 상황만 보고 너무 속을 끓이지 마세요. 귀한 내 몸만 상합니다. ● 금전: 돈이 빠져나가는 운입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세요. ● 애정: 나중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되돌릴 수만 있으면 되돌리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12, 16일 길일, 10, 13일 주의.

닭띠 | 발등에 불이

- 운수: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을 더 이상은 미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 금전: 피해를 줄이려면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 밖에 없습니다. 미리 철저한 대비한 사람과 손 놓고 있다가 당하는 사람과 다가오는 결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 애정: 소개받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2, 13일 길일, 10, 11일 주의.

개띠 | 더 멀리 뿔 준비를

- 운수: 개구리는 뛰기 전에 움츠려야 더 멀리 뿔니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더 멀리 뿔 준비를 하세요. ● 금전: 당장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선택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이득이 될 것입니다. ● 애정: 힐링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1, 14일 길일, 12, 15일 주의.

돼지띠 |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 운수: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살마하면서 방심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 금전: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누군가 한 사람이 저주어야 끝나는 싸움을 서로가 고집을 세우니 쉽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1, 15일 길일, 10, 13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8/17
올스톤에 있는 오빠스시입니다. 스시일 배우면서 오래 같이 일하실분, 주방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781-859-8429

8/17
렉싱턴센터에 위치한 한,일식당 다빈에서 웨이터, 웨이트리스 구합니다.
썸. 781-860-0171

'지금 1위는' 김완선, 1위 자리 지켰다

(서울=뉴스1스타) 이지현 기자 = 가수 김완선이 1위 자리를 지켜냈다.

5일 오후 방송된 MBC 설 특집 예능 프로그램 '다시 쓰는 차트쇼 지금 1위는?'에서는 '1991년 1위' 김완선이 차트를 다시 쓰기 위해 도전하는 5팀과 만났다. 그는 이재영x솔라 팀과 재대결을 벌인 끝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 시선을 모았다.

관정단이 택한 '지금 1위'에는 이재영x솔라 팀의 '유혹'이 선정됐다. 무려 55%의 득표율에 재대결을 앞둔 '1991년 1위' 김완선은 긴장했다.

하지만 김완선은 2019년판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로 긴 재합을 과시, 놀라움을 줬다. 먼저 댄서 부부 제이블랙, 마리가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댄스로 시선을 사로잡은 뒤 김완선이 등장했다. 여왕의 귀환을 알린 무대에 극찬이 쏟아졌다.

결국 '지금 1위'는 김완선이

차지했다. 1991년의 1위 자리를 2019년에도 지켜낸 그는 "받으니까 좋다. 그때보다만 배는 기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 2표 차로 승리한 것이 밝혀지자 김완선은 "미안해"라고 이재영에게 말하기도. 이재영은 "누가 이긴 건 상관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고신해철을 추모하기도 했다. 윤종신은 고신해철의 음악을 얘기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소개해 드릴 1991년 신해철의 명곡은 '내 마음 깊은 곳의 너'다"고 말했다. 이후 스튜디오에는 제주소년 오연준이 등장, 고인의 명곡을 열창했고 큰 감동을 선사했다.

설 특집 2부작 '다시 쓰는 차트쇼 지금 1위는?'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간 방송됐다.

lll@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쯔위, 4연속 10점 기록... '침착함+미모' 빛난 양궁 여신

(서울=뉴스1스타) 황지혜 기자 = 쯔위가 양궁 여신에 등극했다.

트와이스의 쯔위는 6일 오후 방송된 MBC '2019 설특집 아이돌스타 육상 불링 양궁 리듬체조 승부차기 선수권 대회'에 출연하며 화제 선상에 올랐다.

쯔위는 그룹 트와이스 소속으로 여자 양궁 단체전에 참가했다. 쯔위는 해설에 "자세가 너무 좋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어진 결승

전에서 쯔위는 구구단을 상대로 4연속 10점을 기록하며 놀라움을 자아내게 했다. 특히 침착한 모습과 빛나는 미모 등으로 양궁 여신으로 등극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MBC '2019 설특집 아이돌스타 육상 불링 양궁 리듬체조 승부차기 선수권 대회'는 지난 5일과 6일 5시 45분에 방영되며 관심을 모았다.

hwangnom@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Library에는 나무껍질이 있을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대학원 시절 흥대 근처의 리브로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화보나 미술책도 많았고 공간도 쾌적할 정도로 넓어서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때도 이름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 Libro는 책이란 뜻이니까 서점이란 뜻으로 딱이다. 물론 '책방'이란 우리말 이름도 좋긴 하지만 Libro란 서양말이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다. Libro란 똑같은 이름의 서점이 도쿄에도 있는 걸 보면 서양말 좋아하는 일본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보자.

도서관이라 번역하는 library도 '책'을 뜻하는 libra-에서 왔다. 사실, 14세기 무렵 이 단어가 도서관이란 뜻으로 쓰이기 이전에는 고대불어 librairie가 '책방'이란 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이 단어의 원조인 라틴어 librarium은 도서관이 아니라 '책장'을 의미했을 뿐이다. libra-는 '책'이고, -rium은 '장소'를 의미하는 접미사이다. 전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aquarium(수족관), auditorium(강당), planetarium(천문관측소), scriptorium(고

서보관소) 등에서 볼 수 있다.

라틴어 liber는 '나무의 안쪽 껍질'을 의미했고, 궁극적으로는 '벗기다'란 의미를 가지는 인도유럽어 어근 leub-에서 온 것이다. 일부 동유럽어어들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아직도 남아있다. 라트비아어의 loubas(벗기다), 리투아니아어의 luobas와 러시아어의 lub(참나무의 안쪽 껍질)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어근은 당연히 영어 leaf와 동일어근에서 온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책이란 모름지기 나뭇잎이나 나무껍질로 만들기 쉬웠을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란 풀잎을 사용했고, 중국인들은 대나무를 사용했다. 책(冊)이란 한자어는 글씨를 새긴 대나무를 엮어놓은 모습이다. 영국인들도 나무를 사용했음은 물론이다. 고대영어 boc는 현대 영어에서 beech가 되었는데 '너도밤나무'란 뜻이다. 바로 여기서 book이란 단어가 생겨났다. 책을 너도밤나무 껍질로 만들었던 것이다. 재미있게도 독일어에서는 '책'을 의미할 때는 Buch, '너도밤나무'를 의미할 때는 Buche라는 식으로 구별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아무튼 이 게르만족들은 너도밤나무의 껍질이나 그 판자에 툴 문자를 새겨 넣었다.

libro가 책이라면 libretto는 '작은 책자'이다. 리브레토가 오페라의 악보로 쓰인 것은 물론 18세기 들어서부터이다.

어원적으로 libro-가 나뭇잎과 관련이 있고, librerie가 도서관이란 의미보다는 책장이란 의미로 출발했기 때문인지, 도서관이란 의미는 scriptorium이란 단어가 차지하고 있었다. 라틴어 어근 scrib-가 '쓰다'란 의미니까 scriptorium은 '쓰는 곳'이란 뜻이다. 일찍이 히타이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개발한 설형문자로 점토판에 글씨를 새겨 넣던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글씨를 새겨 넣던 곳이 scriptorium이다. 그러니까 scriptorium은 집단 필사작업실이기도 하고, 그런 점토판들을 모아놓은 곳이니 도서관이기도 하다.

영어로 libra-를 포함한 파생어보다 scrib-라는 어근을 가진 파생어가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자명하다. libra-는 '나뭇잎'에서 출발하고 scrib-는 '쓰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ascribe(~의 탓으로 돌리다), circumscribe(제한하다), conscript(징발하다), describe(서술하다), festschrift(헌사), inscribe(새기다), manuscript(원고), postscript(후기), prescribe(규정하다), prescription(처방), proscribe(후술하다), scribble(휘갈겨 쓰다), scribe(필사생), scriptorium(도서관, 문서보관소), scripture(성경, 문서), subscribe(구독하다), superscript(어깨문자), transcribe(전사하다) 등이 있다.

'쓰다'란 단어를 볼 때마다 필자는 한 인물이 떠오른다. 회교도를 창시한 마호메트 말이다. 어느 날 그는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며 묵상하던 중에 갑자기 '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그가 놀라서 글씨를 쓸 줄 모른다고 하자 여전히 '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는 여차저차 해서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회교 경전인 꾸란(Qur'an)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불판 바베큐&라운지

초대박 한식 BBQ 부페 오픈

푸짐한 각종 생고기, 양념고기, 밀반찬류, 야채, 해물까지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동료, 친구들과 불판에서 맛있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Price: Adult \$37.00
Kids 1 \$8.95
Kids 2 \$16.95



9시 이후: Happy Time Discount 매주 수요일: Lady Night Discount
가라오케룸 1인당 \$32/hr 제공

영업 시간: Mon-Wed 4:00 - 11:00
Thur-Sun 12:00 - 11:00

소주, 칵테일 및 다양한 주류
가라오케 및 각종 연회시설 완비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경 미 최대 안마의자 전시장 하이트론스 **축**

대한민국 안마의자 위 기업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판매!

사랑하는 부모님께는,
용돈보다
안마의자!

전신마사지는 기본,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까지
뇌피로 시대의 새로운 해법,
바디프렌드 브레인 마사지

BODYFRIEND



바디프렌드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브레인 마사지란?**

특허받은 바디프렌드만의 기술 뇌파 유도 사운드 바이노럴 비트
[뇌파 유도 사운드(바이노럴 비트)와 스페셜 마사지를 통해 뇌의 깊은 휴식을 유도하고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관리 솔루션입니다.]

▲ 특허 제 10-1859928호 : 브레인 마사지를 수행하는 안마의자 ▲ 특허 제 10-1859927호 : 브레인 마사지를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안마의자



**브레인 마사지 임상 입증
SCI급 논문 게재!**

[안마의자를 이용한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브레인 마사지)가 정신적인 피로와 집중력, 기억력 등에 미치는 영향]
의학 분야의 국제 SCI급 저널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에 게재되어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브레인 마사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 입증**

| | | |
|----------------------------|-------------------------|-----------------------|
| 뇌피로 회복속도 8.8 배증가 | 집중력 지속력 2 배증가 | 기억력 2.4 배증가 |
|----------------------------|-------------------------|-----------------------|



렉스엘 브레인



파라오 5 브레인



파라오 브레인



펜탐블랙 브레인



펜탐 브레인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NJ Main Branch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

Bethel Health - NY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

Bethel Health - NJ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

PA Branch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

MD Branch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

Mattress- NJ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68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혼란스러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너무 빨리 돌아가는 문명 앞에 정말 골이 흔들린다. 뭔가 제대로 보려 할 때쯤이면 저만치 가있는 요즘 현대과학과 의학 그외의 것들이 그렇다. 그야, 발달한 만큼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 관련이 있으니 더욱 좋은 일이다. 그런데 요즘 더 빨리 돌아가는 것이 IT 분야이지 않던가. 올봄에 S사에서 출시한 새로운 셀폰을 구입하였다. 기계라면 정말 문외한인 내가 사용하는 것이라고는 통화와 사진 담기 그리고 카카오톡과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보이스톡 정도밖에는 뭐 할 줄 아는게 없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용한 정보들도 많았는데 몰라서 놓쳐버리는 것이 많다.

가끔 아는 것이 없어 혼자 휴대 전화 매뉴얼을 찾아보다가 모르겠기에 남편에게 물어보는데 몇은 한국 언어를 선택해 올린 것이 있었다. 한국말이 서툰 짝꿍이 제대로 일 처리를 못 해주니 속상하고 말았다. 그리고 가끔 가깝게 지내는 동생에게 물어보면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어 힘들다며 아예 한국말로 다 바꿔놓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영어가 편한 부분이 있기에 모두를 한국어로 바꿔놓을 수도

없으니 말이다. 남편이나 동생이나 모두가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지만, 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을 어쩔까.

얼마 전의 하루, 휴대 전화가 갑자기 멎통이 된 날이 있었다. 내가 저장한 비밀번호가 갑자기 틀리었다며 다시 시도해보라는 것이다. 몇 번을 반복해도 안 열린다. 한번씩 시도하면 할수록 다시 시도해보라는 시간은 길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3분 후에 해보라는 것이 나중에 30분 후에 다시 추라이 해보라는 것이다. 그때는 당황했는지 휴대전화의 파워를 꺼볼 생각마저도 나질 않았다. 휴대전화의 내 비밀번호는 분명 한데 안 열리는 것이 이상해 계속 반복시도를 해본 것이다. 그렇게 만나절은 전화를 손에서 떼지 못하고 들고 있었던 기억이다.

그렇게 만나절을 보내고서야 어떻게 되었는지 전화가 열렸었다. 그런데 그제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방금 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열었던 휴대폰이 갑자기 또 멎통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 두 번은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파워를 꺼보면

제대로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웬걸, 파워를 끈 다음 잠시 후에 다시 파워를 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열리는 것이 아닌가. 아하, 이제는 알것 같았다. 그것은 지난번 만나절을 끄고서 전화 열 어보려 했던 무지에서 나온 지혜 덕분인 것이다.

어디 휴대전화뿐일까. 우리네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던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마음대로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때를 만나지 않던가 말이다. 이럴 때 멈추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 가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고 실패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급한 일일수록 돌아가라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일을 두고 한 말씀인 게다. 삶에서 급한 일을 만날수록 잠시 깊은 심호흡으로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일과 마주할 수 있다면 여유 마음이 생겨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모르는 것이 죄(잘못)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랑은 더욱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배

우려 노력하지 않는 게으름이 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 이처럼 작은 일상에서 겪는 경험들을 통해 조금 더 나 자신에게 배울 기회가 주어지니 고마운 일이 아니던가. 더도 덜도 말고 내가 노력한 만큼만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시간을 내어 배워보고 싶어졌다. 무작정 어렵다고 뒷전에 놔두지 말고 더딘 걸음이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며 걸을 수 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되는 이유이다.

이제는 더욱 무수히 쏟아져나오는 정보들이 많을 것이다. 그 정보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려면 아무리 기계가 싫더라도 친해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르면 배우고 알면 가르치며 사는 삶이 우리네 나눔의 삶이 아닐까 싶다. 내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는 우리가 되는 세상 말이다. 모른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안다고 밀어내지 않는 그런 삶이면 좋겠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으쓱대지 않는 겸손과 다른 사람보다 덜 배웠다고 덜 가졌다고 움츠러들지 않는 자신감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삶이고 존재인 까닭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연탄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다. 일월도 아닌 이른 초봄까지, 연탄가스 조심하란 말이 유행처럼 떠돌았다. 연탄가스는 일산화 탄소이다. 어지럽고 메스꺼우며, 두통을 동반한다. 그건 내가 안다. 그날 새벽 나도 그것에 중독되었다. 학교를 결석할 수밖에 없었다. 김치국물을 마셨는지, 박카스를 마셨는지 기억할 수 없다. 아마 냉수는 마셨을 것이다. 그게 삼천리 연탄이었나 그것도 기억할 수 없다. 연탄이 타고 나면 연탄재가 남는다. 안도현 시인이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중에서)

이월은 징검다리 달이고, 건너가는 달이다. 이월이면 방학도 아닌것이, 학교안도 고요하여 가라앉을 때다. 교실안은 추운듯, 쓸렁한듯, 그저 새학기 새학년만 고대하는 시기였다. 교과서는 끝났을 것이고, 선생도 학생도 모두 긴장감없어 느긋할 때 인거다. 하지만 불없는 조개탄 난로는 쓸렁하기만 했다. 교무실만 등사판 잉크냄새와 더불어 따뜻했고, 시끌했다.

담임선생이 말했다. 무지 춥지 않다면, 난로를 피울수 없다.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다. 오래된 교사는 대개 목조였을 적이니 말이다. 게다가 책걸상이며, 마루바닥은 모두 나무가 재료였다. 또한 아

이들이 불을 관리해야 할진대, 그건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했다. 화재위험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책정된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건 나중에 알았다. 뻘한 예산덕에, 조개탄창고는 항상 달랑달랑했지 싶었던 거다. 당번이 받아오는 조개탄은 날개로 세어 받아올 정도였을 것이다.

난로위에서 데워지는 누런색 물주전지는 정겨웠다. 누런색 도시락 밥과 김치억어가는 냄새도 구수했다. 점심후, 5교시엔 음식점 주방안과 다름없는 김치볶음냄새가 진동했다. 한편, 점심후 아이들 향해 공격해 오는 식곤증을 막아낼 비책은 없었다.

한국 군대막사안 난로는 여전히 활활 타고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럴것이다. 삼월중순까지 난로를 땀으니 말이다. 난로는 빼치카라 불렀는데, 러시아 난방시설을 모방했다 던가. 난로

는 조개탄을 태운건 아니었다. 석탄가루를 진흙과 같이 물에 이겨낸, 검은색 덩어리였다. 보기와는 달리 화력은 대단했다. 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병사는 '빼치카 당번' 이라 불렸다. 귀여움을 독차지했으며, 막사안의 보배였다. 문제가 아주 없던 건 아니다. 아침이면, 모두 콧구멍이 새까맣더라. 석탄가루 먼지 속에서 잠을 자야했기 때문이다. 그 땀던 석탄가루는 다 어디로 갔을까?

지난해 말이였다. 고3학생들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세명이 숨졌다. 참변이었는데, 대학수능시험을 끝낸뒤였다. 안타깝다. 돌아간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 전서 3:15)

보스톤 한인야구 리그 선수모집

TRYOUTS

March 2th 2019, 11AM

Location:
Extra Inning (Watertown)
100 Paker St. Watertown MA.

Contact:
bostonkbl@gmail.com



보스톤 한인야구회
www.bostonkbl.info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13) 잭 보글과 금융회사

2019년 새해에 돌아가신 벵가드 창업자인 잭 보글(Jack Bogle)은 미국 금융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 “미국 대부분 투자 회사는 일반 고객에게 부끄러운(Shameful) 행위를 한다. 뮤추얼 펀드 회사가 부과하는 경비는 고객의 돈을 절도(Larcenous)하는 것과 같고 보험회사나 투자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노상강도(Like highway robbery)와 다름없다.” 라고 감히 말한다. 한 개인이 미국 전체 금융회사를 혹평하는 데는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경제학자인 펄 샘얼슨(Paul Samuelson)은 “뮤추얼 펀드 운용자나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함께 이익을 얻어야 한다(To make the mutual fund truly mutual.)” 고 논문을 발표했다. 이 개념을 기본으로 벵가드(Vanguard Group)가 탄생했다. 벵가드는 회사가 아니다. 투자자 모두가 주인이다. 벵가드에 투자된 자산이 1990년에는 \$56 Billion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무려 \$5.1

Trillion이다.

벵가드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피델리티(Fidelity) 소유주의 개인 자산이 \$26 Billion이다. 잭 보글의 자산은 \$80 Million에 불과하다. (참고로 \$1 Billion은 \$1,000 Million) 피델리티와의 차이 금액은 벵가드 투자자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벵가드와 경쟁하기 위해서 모든 금융회사는 투자경비를 절감하고 있다. 잭 보글 생애 동안 일반 투자자들이 절약한 경비가 약 \$500 Billion 이라고 한다.

잭 보글은 모든 투자자의 비용 절감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물론 “주식시장 수익률을 능가할 수 있다(Beating the stock market)” 고 선전하는 금융회사가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를 통계를 보여준다.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월 스트리트 신문에 ‘지난 15년 통계에 의하면 뮤추얼 펀드 90%는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뒤 떨어졌다(The secrets of Jack Bogle’s investment

success, Burton G. Malkiel, Jan. 17, 2019, WSJ)’ 고 언급한다.

잭 보글은 1976년 최초로 인덱스 펀드를 시작했다. 투자 돈이 \$150 Million을 기대했지만 모인 돈은 단 \$11 Million에 불과했다. 그 당시 주식전문가는 회사를 평가해 보지 않고 무조건 500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40여 년 후 현재 인덱스 펀드에 투자된 돈이 미국 주식시장 전체 50%를 점유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펄 샘얼슨은 잭 보글의 인덱스 펀드는 세계 최초의 바퀴(Wheel), 포도주와 치즈(Wine & Cheese), 알파벳(Alphabet), 구텐버그의 활자(Gutenberg printing)에 버금가는 혁신이라고 말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도 미국 국민에게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의 동상을 세운다면 잭 보글을 추천한다고 2017년 주주총회 편지에 발표했다.

잭 보글의 가르침으로 인덱스 펀드를 이

용해서 투자하라고 지난 30년 동안 언급했다. 투자할 때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속담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비가 적을수록 수익률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42년 전 벵가드 S&P 500 인덱스 종목에 \$10,000불을 투자했다면 연평균 수익률 11.22%로 \$870,325로 불어나는 높은 수익률이다.

아이들 키우면서 바쁘게 생활하는 이민 생활과 투자에 대한 무지함을 이용하여 높은 수수료와 비싼 투자 경비를 부과하는 투자 종목이나 어뉴티(Annuity)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라는 재정 설계사나 보험인이 주위에 많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듣기에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한다. 세월이 지난 후 투자 돈이 불어나지 않음을 인식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고 후회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투자하기 전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62 화랑세기花郎世紀, 11세 풍월주風月主 하종夏宗(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기 가슴에서 나와 묘도의 가슴으로 날아들었다. 놀라 꿈에서 깨어난 옥진은 이상하게 여겨 묘도의 침실로 가 보았더니, 묘도와 미진부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미진부는 삼엽공주가 어머니이며, 삼엽은 법흥왕과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벽화의 딸이다. 묘도는 어릴때 법흥왕의 후궁으로 있을 당시 늘 미진부를 사모하였다. ‘작고 좁다’ 는 이유로 왕의 총애도 받지 못하였고, 한편 또래의 미진부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기도 했다. 묘도는 후궁 옥진의 딸이었고, 미진부는 공주 삼엽의 아들이었기에 그들은 궁중에서 전각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서 살았다. 그러던 어느날 묘도는 미진부와 상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였으며 장래를 맹세하였다. 법흥왕이 540년에 죽었고, 그들은 결혼하였다. 그 후 미실이 태어났다. 그 당사가 546~8년이였다. 드디어 신라에는 벽화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태어났다. 미실은 외할머니인 옥진의 절묘한 용모와 풍후함을 닮았고, 아버지 미진부의 외할머니인 벽화의 환하게 밝음을 닮았으며, 옥진의 어머니인 오도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닮았기에, 백화의 신묘함으로 뭉쳤고, 세 가지 아름다움의 정수가 모여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외할머니 옥진은 ‘우리의 도(대원신통의 인맥姻脈)’ 를 일으킬만 하다면서 어릴때부터 교태嬌態(원문에는 아첨할 媚字인 미도媚道로 기록

되어 있다)와 가무를 지도하였다. 하지만 후일 562년경에 세종전군의 후궁이 되어 궁으로 들어갈 때 옥진은 외손녀 미실이 왕의 후궁이 아닌 전군의 후궁으로 감을 아쉬워했다. 하지만 미실의 아름다운 ‘꽃’ 은 진흥왕의 ‘나비’ 를 유혹하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었다. 곧 미실은 진흥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 진흥왕과 세종전군은 이부동복의 형제이다. 진흥왕의 부모는 입종과 지소태후이고, 세종전군의 부모는 이사부와 지소태후이다. 화랑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때 미진부공의 어머니 삼엽공주三葉公主와 늘 궁중에서 입시하여, 묘도와 전대를 사이에 두고 머물렀다. 묘도가 바라보고 ... 미진부공을 사모했다. 미진부공이 화랑을 지나가는 것을 틈타 ... 들어서 상통했다. 서로 크게 맞아 동혈의 ...이 되기를 맹세했다. ...왔다. 법흥제가 죽자 태후가 아시공과 가까이 하고자 하여 ...을 허락했는데,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다. 하루는 옥진공주가 꿈에 칠색조가 자기의 가슴속에서 날아 묘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 일어나 이상하게 여겨 묘도의 침실에 가서 엿보았다. 그 때 묘도와 미진부공이 바야흐로 함께 함께 사랑호를 나누는 중이었다. 옥진공주는 이에 기뻐서 알려주며 “너희 부부는 이제 귀녀貴女

를 낳을 것이다” 했다. 과연 미실을 낳았다. 용모가 절묘하여 풍후함은 옥진을 닮았고, 환하게 밝음은 벽화를 닮았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오도를 닮아서 백화百花의 신묘함을 뭉쳤고, 세 가지 아름다움의 정수를 모았다고 할 수 있었다. 옥진이 “이 우리 아이는 우리의 도도를 일으킬 만 하다” 말하고, 좌우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며 교태를 부리는 방법과 가무歌舞를 가르쳤다. 태후의 명으로 세종의 궁으로 들어가려 할 때 옥진이 근심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가르친 것은 장차 너의 숙모의 잉첩이 되게 하려는 것이지 어찌 전군을 섬기라고 한 것이겠느냐?” 했다. 미실이 “빈첩의 도는 색공色供에 있는데 어찌 제帝를 받들지 못하겠습니까?” 했다. 옥진은 크게 기뻐하여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이 아이는 족히 도를 말하니 나는 근심이 없다” 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h.go.kr)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대리점 모집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0-5042-8073 Internet.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2018년 세금신고 안내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6)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 (1)

연구원/방문교수 등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미국의 연방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란, 외국인(alien)중 ①영주권자(Green Card Test)와 ② ‘실체체류기간(Substantial Presence Test)’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J비자를 소지한 연구원/방문교수 등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Substantial Presence Test와 exempt individual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일수를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첫째: 당해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해야 하며,
- 둘째: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text{당해연도 체류일수} + \text{지난해의 체류일수} \times (1/3) + \text{지지난해의 체류일수} \times (1/6))$$

그런데 예외적으로 외국정부직원, 자선경기에 참가한 직업운동가, 교사, 연수생, 연구원 및 학생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해 준다(exempt individual). 이 규정은 연구원 등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을 적용할 때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해 준다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는 그 일정기간 동안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가 될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J비자나 Q비자를 소지한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은 2과세연도(즉, 입국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를 비거주자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J비자나 Q

비자를 소지한 연구원 등이 지난 6년의 과세연도 중 어느 2과세연도를 F, J, M, Q비자를 가지고 학생이나 연구원, 방문교수 등의 자격으로 이미 비거주자로 인정 받았다면, 당해연도에는 더 이상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체류기간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연구원 등으로 면제받은 기간이 지난 6년의 과세연도 중 4년 이하여야 하고,
- 당해연도의 모든급여소득은 외국 고용주가 지급한 것이어야 하고,
- 연구원 등이 미국에 거주한 과거 6년의 기간 중 실제 거주한 매해의 모든급여소득을 외국고용주가 지급했어야 한다.

이 예외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연구원 등은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된 연구원 등에 대한 과세

지금부터는 위의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판정된 연구원/방문교수의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비거주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는 달리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세금이 계산된다.

미국내 원천소득만 신고

연구원 중 비거주자로 판정된 사람은 ‘미국내 원천 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따

라서 연구원 등은 본인의 소득(즉, 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로열티, gambling 소득... 등)이 미국내 소득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미국세법과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소득에 따라 각각 소득의 원천을 구분하고 있다. 그 기준을 보면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나 인적용역의 대가인 급여, 미국의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은 미국의 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연구원 등에게 급여, 이자, 부동산임대소득과 양도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조세조약에 의한 면제

조세조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은 조약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 입국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조세조약 제 20조(교직자)). 이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비거주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는 다르게 과세된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은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연구원 등의 소득이 급여소득 등과 같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득이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과세하는 방법으로 과세된다. 반면 소득이 주식 양도소득 등과 같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소득(NEC: Not Effectively Connected)이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30% 단일세율(조세조약에서 정한 낮은 세율이 있는 경우 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고국방문 의료관광을 고민하시나요? 의료관광 휴람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은 고객님의 병력에 따라 사전 견적을 받아 전문 분야에 맞는 병원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상담을 통해 사전 견적을 받고 믿을 수 있는 의료관광 휴람을 통해 준비해보세요.

보건복지부 국가 건강검진 기관 평가 5등급 병원(최고 등급)

종합병원 세란병원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30년 전통의 세란병원

【종합검진 기본 항목】

보건복지부 국가 건강검진 기관 평가 5등급 병원(최고 등급)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30년 전통의 세란병원 최의료를 통해 최고의 시설에서 편리한 검진을 받으므로 특별가로 제공합니다.

| | | |
|-----------------------|------------------|------------------|
| 휴람 당일 종합검진 | 남성 70만원 → 49만원 | 여성 70만원 → 49만원 |
| 휴람 속박 종합검진 | 남성 100만원 → 69만원 | 여성 100만원 → 69만원 |
| 휴람 주말 속박 종합검진 | 남성 180만원 → 129만원 | 여성 180만원 → 129만원 |
| 휴람 VIP 속박 종합검진 | 남성 350만원 → 244만원 | 여성 350만원 → 244만원 |

라식 라섹의 차별화/체계화된 안구구조 진단과 치료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휴람 특별가 이벤트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이 제안하는 40~50대들을 위한 노안 예방과 치료
이대 휴임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소하세요

- 휴람 안 종합검진 (6시간) 40~49세 30~40세 / 50~59세 / 60~69세 / 70~79세
40~49세 100만원, 50~59세 120만원, 60~69세 140만원, 70~79세 160만원
- 노안 검사, 노안성 백내장 수술 (노안 + 백내장) 299만원
노안성 백내장 수술 (노안 + 백내장) 700만원
- 4000도안 라식/라섹 수술 150만원
- 2030 라식/라섹 130만원

중년을 서늘하게 준비하는 40~50대들을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 복합성 백내장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안구 건조증, 안압 상승, 안구염 등 안질환이 있는 경우
- 안과 질환이 없는 경우

비결계식 모발이식센터 선두주자

모아름 이규호 모발이식센터

“오직 비결계 기술을 고집합니다”

하루에 천만발 최선을 다하는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모발 손실률 3% 이하로 성취율 90% 이상을 자랑합니다. 수술 후 다음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 | MIT(식발) | M2G(비식발) |
|-------------|---------|----------|
| 병원 정상기 | 7,700원 | 13,200원 |
| 후발 할인가 (5%) | 7,300원 | 12,500원 |
| 1모발당 후발 할인가 | -400원 | -700원 |

수술 전/후 모습

노상훈 성형외과

확은 성형보다는 바른 성형!

노상훈성형외과는 고객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고객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려는 발에 정복을 내립니다.

- 안면용 동원된 아름다움을 지탱해줄 튼튼하고 강한 성형
- 공부한 정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단부터 수술까지 직접!
- 상담, 수술, 회복까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 4인 진료팀은 1:1 맞춤형 진료

노상훈성형외과 성형 EVENT

| | | |
|---------------------------|--------------------------|--------------------|
| 상안검 167만원 → 154만원 | 눈썹거상 229만원 → 187만원 | 하안검 487만원 → 154만원 |
| 안면거상 559만원 → 440만원 | 안면거상 + 목거상 880만원 → 660만원 | 이마거상 495만원 → 440만원 |
| 코성형 (콧대+코끝) 308만원 → 298만원 | Dr. 노상훈 (성형외과 전문의) | |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ram@h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24 Havarad St,
Brookline, MA 02446
74 Elm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쫓아가는 돈, 따라오는 돈, 당신의 선택은?'

이번 칼럼을 시작하기 전, 지난 번 칼럼의 사례인 돈을 쫓다 오히려 돈을 잃는 푸엣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한다. 푸엣은 왜 근 15년, 타이 레스토랑 주인이 되는 자신의 꿈을 쫓아 열심히 모아둔 돈과 형의 집마저 잃어버려야 했을까? 사업에 크게 실패하며 크게 좌절하면서 생을 포기하는 자살시도를 해야 했을까? 첫 번째 이유로 자신의 큰 꿈의 다이아몬드를 갖기위해 매일매일 옆에서 자신의 지켜주는 가족을 지켜주는 작은 다이아몬드를 무시하며 살아온 푸엣의 삶의 자세를 살펴본다. 그는 정식 부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명의 자식을 낳아 키우며 살아 온 자신의 여친이 얼마나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싱글 마더에게 주는 정부 혜택을 무시할 수 없었다. 섹션 8의 하우스링 베네프, 푸드 스탬프, 무료 정부 보험과 작지만 매달 나오는 캐시 베네프를 합치면 꽤 큰 돈을 정부로부터 매달 보조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은 섹션 8 베네프에 해당이 되지 않기에 자신이 가족의 집에 살고 있음을 숨겨야 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지 않게 돈을 버는 법을 가르켜주면서 진정한 아버지의 위신이 설 수 있었을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말이있다. 자신의 가족을 등한 시 하면서 모아가던 그의 생의 자세가 오히려 자신의 돈마저 날리는 결과가 왔다. 돈은 의외로 정직하다. 작을 지라도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 모은 정직한 돈은 돈을 따라오게 한다. 땀 흘려 벌은 돈은 현실적인 꿈을 보게하는 심안(心眼)을 주기 때문이다. 돈 따라오는 운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얼마 안된다. 평범한 사람들이 돈이 따라오기 하기 위해서는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한다.

두번째 이유로 푸엣의 부모였던 도전이었다. 가장으로서의 도리를 하며, 정직한 돈을 모으며 오는 작은 행복의 다이아몬드를 무시하며 살아온 그의 삶의 태도는 자신의 큰 꿈, 큰 레스토랑의 주인이 되는 큰 다이아몬드 집착하게 했다. 그러다보니, 현실적인 꿈이 아닌 허황된 꿈을 목표로 삼게되었다. 형의 집마저 은행담보로 잡히며 무리하게 큰 레스토랑을 내어 일년도 안되어 문을 닫게 되고 말은 것이다. 그가 임대료가 적은 동네에 조그만한 테이크 아웃 음식점부터 시작을 했다면 돈은 그를 따라왔을 것이다. 음식 사업은 일단 맛이 좋아야하고, 정성이 느껴져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시작되고, 푸엣의 음식점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푸엣은 매일 매일 자신의 경험을 쌓게되고, 더욱 큰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면, 푸엣이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돈이 푸엣을 따라오고 마는 것이다. 매일 매일이 주는 작은 성공의 과정을 겪으며 푸엣은 자신의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더욱 커져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 더 큰 음식점으로 사업을 확장하여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푸엣이 왜 돈을 따라오지 못하게 했는지의 세번째 이유를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첫단계는 '생리 욕구(Physiological Needs)'를 말한다. 허기를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구로써 가장 기본적인 의복, 음식, 가택을 향한 욕구에서 성욕까지를 포함한다. 둘째는 '안전 욕구(Safety Needs)'이다. 생리 욕구가 충족되고 나서 나타나는 욕구로써 위협, 위협, 박탈(剝奪)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이다. 세번째로 '소속감과 애정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를 말한다. 가족, 친구, 친척 등과 친교를 맺고 원하는 집단에 귀속되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네번째로 '존경욕구(Esteem Needs)', 명예욕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인간의 기초가 되는 욕구이다. 존중과 자신감, 성취, 존중 등에 관한 욕구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를 말한다. 자기를 계속 발전하게 하고자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이다. 매슬로우의 욕구 구조는 생리적, 안전, 사랑과 소속욕구의 낮은 수준의 '결핍욕구'와 존경, 자아실현욕구의 '성장욕구'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푸엣의 가족은 1975년 공산 월맹에 의해 베트남이 적화통일되자, 1982년 보트에 몸을 싣고 베트남을 탈출하여 미국으로 정착하였다. 전쟁을 겪으며 자라면서 굶주림과 불안감으로 생리욕구와 안전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형제가 많아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는것도 그리 충족하지 않았다. 미국에 올때 10살이었던 푸엣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고, ESL의 도움을 받으며 정규과정으로 들어 갈 수 있었다. 언어의 장벽과 미국문화를 적응하는 것이 힘이 들었지만, 미국정부의 푸드 스탬프와 하우스링 혜택으로 생리욕구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안전욕구가 채워지면서 푸엣의 부모님은 행복해했다. 영어가 수월해지고 미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보수적이며 미국정부의 혜택에 충족하며 살아가는 부모님에게 반항이 시작되었다.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같은 집에 살면서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푸엣이 부모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세 아이의 엄마를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부모도 '보트피플'로 베트남을 탈출하여 미국에 정착하였고, 이러한 비슷한 환경이 그들을 가깝게 하였다. 푸엣은 12학년에 이미 첫 아이를 갖게되었다. 푸엣의 여친, 지금 세아이의 엄마는 틴 마더의 정부혜택으로 하우스링을 얻었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부모와 같은 삶의 형태인 정부의 혜택을 받아 살아가게되었던 것이다. 다른점이 있다면, 푸엣은 자신의 큰 꿈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자살 시도 이후, 필자의 치료를 받으며 푸엣은 생계를 꾸려가는 것도 어려

운 그의 부모님이 자신을 방치하며 키웠음을 이야기했다. 국민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했던 어머니는 교육의 중요성을 몰랐고 무능력했던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다. 그는 형제들과 지내면서 그냥 혼자 자라난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대책도 없으면서 6명이라는 많은 자식을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무섭지만 본 받고 싶은 대상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그 카리매틱한 대상이 심어주는 도덕관념과 규율형성은 살아가면서 절제, 성실, 배려, 책임, 도리를 키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은 도덕과 신뢰, 이타심이 없이는 따라오지 않는다. 큰 부자들이 도덕성을 잃어 알거지가 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유는 생리적욕구와 안전욕구가 충족되면 애정욕구와 존경욕구를 돈으로 살려했기 때문이다. 돈이 따라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중시여겨야 한다.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람 마음을 정직하고, 배려있게 살 줄 알아야 한다. 돈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한다. 성실함이 없으면 돈은 따라오지 않는다. 돈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금과 재테크를 할 줄 알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끈기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도전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생의 질서를 가르켜주는 대상은 돈을 따라오게하는 필수적인 존재이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를 살펴본다. 제프 베조스의 어머니는 17살 제프를 낳았고, 제프의 생부는 그들을 버렸다. 하지만, 제프의 어머니가 제프 17개월에 재혼하면서 새 아버지 '미겔 베조스'를 만났다. 그의 진짜 성, '졸겐슨'을 버리고 새 아버지의 성, '베조스'를 따랐다. 그의 새아버지인 미겔은 아무 밑천 없는 10대 쿠바 이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노력하여 석유기업 엑슨에 입사하고 훗날 경영진에 올랐다. 그는 제프 베조스의 롤 모델이 되었다. 인터뷰에서 제프는 자신을 키워준 새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존경을 드러낸 바 있다.

푸엣은 테라피 치료를 통하면서 정식으로 결혼절차를 받았다. 자신이 진 빛이 너무커서 파산신청을 해야 했지만 다시 다른 레스토랑에 취직하여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 작은 다이아몬드를 매일매일 소중히 모으면 자신도 모르게 큰 다이아몬드가 옆에 있음을 깨달아가면서...



무료입장



토요일
2019년 2월 9일
오전10시-오후5시

설날 행사

MFA 에서 중국, 한국, 베트남의 전통을 만나보세요. 미술품 감상은 물론,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 각종 문화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fa Museum of Fine Arts Boston

mfa.org/lunar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 | | |
|-------------------------------------------------------------------------------------------------------------------------------------------------------|-----------------------------------------------------------------------------------------------------------|--------------------------------------------------------------------------------------------|
| <p>보스턴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p> | <p>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0M, 매매가격 \$640k 플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p> | <p>성업 중인 동양식당, 캠브리지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연매상 \$500,000 매매가격 \$150,000</p> |
| <p>보스턴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피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플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p> | <p>보스턴 외곽 동양 식품점, 술, 로타리 연매상 \$800k, 매매가격 \$100k+스타</p> | <p>보스턴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p> |
| <p>뉴턴 지역 렌드로멧 연매상 \$18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p> | <p>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p> | <p>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p> |
| <p>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8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200,000 랜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80,000 오너파이낸스고려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p> | <p>보스턴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p> | <p>프레밍햄 지역: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p> |
| | <p>보스턴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p> | <p>보스턴 북쪽 헤어살롱, 아주고급동네 연매상 \$80,000 좋은 랜트</p> |

www.ksneusa.org (1975-2019 개교 44주년)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2019학년도 봄학기 등록부 ***
 NE지역 최대 규모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늘 최선을 다해 2세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을학기 일정: 2019.2.23 - 2019.6.15

- * 신입생 소집: 오리엔테이션 및 반 편성- 2월 23일(토) 오전 8시 40분(교실 123)
- ◆ 과정 안내: 기초-고급과정(22반) 이중언어 과정(6) 성인반(2) 특별교육(16)
- ◆ 병아리(2월에 3세인 아동) 기초1(해님 & 달님반), 봉반(세종 1)→선착순 등록
- ◆ 학교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C/o Oak Hill Middle School)
- ◆ 등록기간: 2019년 2월 17일까지 (신입생)
- ◆ 오전 및 오후 프로그램 수업 과목 안내 :
- (1)오전반: 9:30am-12:40pm: 한국어·한국역사·한국문화·음악교육(1-3반),
작문교육(1-3반)·서예반·한국무용·사물놀이 등 전통/문화교육 및 기타
- (2)오후반: 12:45pm-1:45pm: 미술1반·민화반·발레·태권도·사물놀이·서예반
- ◆ 수업료(오전 & 오후 프로그램) ◆ 마감일 이후 등록시: Late Fee \$20
- (1) 오전: \$340/1명 *\$620/2 *\$770/3 (2) 오후반: \$130/1 (3) 병아리반:\$180
- (2) 성인반 등록 혜택: 자녀가 등록한 부모인 경우 : 50% 할인
- (3) 자녀 2인 이상 등록하는 가정은 등록금의 3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 ▶ 등록금 수표는 Korean School of New England로 작성해 주십시오.
- ▶ 등록금 보내실 주소: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Il Nam, Principal
4 Bryant Ave.
Shrewsbury, MA 01545

★ 등록 문의 & 교사지원과 학교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Homepage : www.ksneusa.org
- ◆ 연락처: 남 일 교장: (508) 523-5389(C), (508) 842-1551(Fax)
- ◆ Email: koreanschool.ne@gmail.com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함께 수고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

2세들의 한글·한국역사·문화교육·음악·미술교육 등 2세 교육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교사/보조교사로 2세 교육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 연락처로 알려주십시오.

- * 모시는 부문: 유아교육·한글·문화·역사 교육 등 2세 교육 전 부문
- * 교사 자녀 장학금 및 기타 교사회 각종 지원

◀ 등록부(Registration form) ▶

(2018 가을학기 재학생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면 *표시된 부분만 기록)

*한글이름:(1) _____ (2) _____ (3) _____

영문이름 _____

생년월일(년월일): _____ 성별 : 남(Male) _____ 여 (Female) _____

출생지(Birth Place): _____ *학년(2018년 봄): _____ 반

부모/보호자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집주소: _____

Email: _____

* Cell(1): _____ Cell(2): _____

*비상연락(성명): _____ 전화: _____

◀신입생만 기록(New Students Only): 한글실력(Korean Level)·자세히 기록▶

★ 말하기(Speaking): _____

★ 듣기 (Listening): _____

★ 읽기 (Reading) : _____

★ 쓰기 (Writing) : _____

오전반 수업료 \$ _____ \$340/1, \$620/2, \$770/3명 (병아리반: \$180)

오후반 수업료 \$ _____ (지원: _____ 반) \$130/1인

기부금: \$ _____ (Tax Deductible)

총 액: \$ _____ (마감일 이후 Late Fee \$20)

◆학부모님 및 후원자 여러분의 재능기부와 후원(Donation)을 부탁드립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연방·주정부에 비영리단체(Non-Profit Org)로 등록되어 있어서 후원금의 세금 공제 혜택(Tax deduction benefit)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9학년도 봄학기 신입생/편입생 소집일(오리엔테이션 & 반편성) : 2월 23일(토) 오전 8시 40분 → 교실 123 ★